문학의 ‘우연한’ 경로 만들기-운동으로서의 문학 연구

-이상경 선생님과의 대화

질문

노지승(인천대)

배상미(고려대)

이소영(한국과학기술원)

이재웅(경상국립대)

이한나(연세대)

한경희(한국학중앙연구원)

기록 및 촬영

김효재(서울대)

이무언(고려대)

이 인터뷰는 제3회 한국현대문학자대회에서 기획한 ‘한국현대문학의 건설자들’의 일환으로 진행하였으며, 재단법인 한국연구원의 지원을 받았다. 인터뷰의 기획 및 진행에 도움을 주신 한국현대문학자대회 조직위원회와 재단법인 한국연구원에 감사드린다. 인터뷰는 2026년 1월 26일 14시-21시에 한국연구원에서 진행하였다. 긴 시간 동안 한국문학 연구의 역사와 연구자이자 여성으로서의 삶을 들려주신 이상경 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 인터뷰를 진행한 후, 질문자와 답변자가 인터뷰 기록을 검토 및 보완하였다. 현장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리하되 의미의 전달을 위해 문장을 다듬었다. 부정확한 표현 및 정보 또한 바로 잡았으며, 답변자가 보충한 상세 정보는 ( )로 표시하였다.

목차

1 인터뷰를 시작하며
2 1970년대 학부생 시절: 강의실 밖, 젠더 불평등, 대학원 진학
3 문학 연구자로서의 성장 과정
3.1 1980년대 여성사연구회 모임과 최초의 페미니즘 비평
3.2 1980년대 진보적 학술 운동: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학사연구소 활동
3.3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여성으로서의 삶과 연구자로서의 삶
3.4 1990년대 문학 비평가로서의 활동
3.5 1990년대 중후반 여성문학 연구자가 이공계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친다는 것
4 여성문학 연구의 넓이와 깊이
4.1 신여성들, 여성 작가들의 삶, 그리고 연구자 이상경의 삶
4.2 '여성문학' 연구의 진전을 위한 여성 작가 전집/선집 및 영인본 발간, 그 위상과 평가
4.3 북한여성문학 연구의 동력
4.4 식민적·성차별적인 환경에서 성장해 온, 식민지 조선의 '여성문학'에 대한 평가
4.5 한국에서 한국문학을 연구한다는 것
5 그동안의 연구와 삶을 반추하며, 그리고 '한국현대문학자들'에게
5.1 연구자 이상경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연구 계획
5.2 연구자 이상경이 함께였던 순간들, 그리고 '한국현대문학자들'에게

국문 요약

이 인터뷰는 1980년대부터 ‘운동’으로서 문학 연구를 수행해 온 연구자 이상경의 삶의 궤적에 대해 나눈 대화이다. 1970년대 대학 생활에서부터 시작된 여성주의적·사회주의적 관점에서의 문제의식은 다채로운 학술적 실천으로 뻗어나갔다. 카프문학 연구, 남한과 북한을 아우르는 문학사 서술, 신여성 작가들과 북한 여성 작가들의 전집 및 평전 발간, 그리고 이를 통한 해외 한국문학 연구자들과의 교류까지 살펴 보았다. ‘우연한’ 만남들을 통한 ‘공동의’ 작업들이 그의 학문적 여로에 중요한 준거점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이상경과의 대화는 지금 여기에서 ‘함께 공부한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기게끔 한다.

국문핵심어: 학술 운동, 카프문학, 한국문학사, 남북한문학사, 신여성 작가, 북한 여성 작가, 전집, 평전, 여성문학사, 한국학, 이기영, 강경애, 나혜석, 임순득, 김윤식, 은종섭, 오향숙

1 인터뷰를 시작하며

질문 한국현대문학자대회는 선배 연구자와 후배 연구자들이 세대를 뛰어넘어 만나서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인터뷰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현대문학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를 사유해 보려는 것인데요. 특히 오늘은 ‘여성문학사’, ‘1980년대 학술 운동’, ‘1990년대 여성문학’, ‘식민지 여성문학’, ‘북한여성문학’ 등 여러 경로로 이상경 선생님을 ‘글’로서 뵈었던 연구자들이 직접 선생님을 뵙고 그동안 선생님께 궁금했던 점들을 여쭤보는 귀한 자리입니다. 다양한 학교에서 서로 다른 공부를 해왔던 저희들이 ‘이상경’ 선생님이라는 하나의 기점으로 모이게 되었는데요.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을 모시고 그동안 선생님께서 해오신 연구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도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인터뷰에 임하시는 소회에 대해 말씀 청합니다.

답변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요즈음은 옛날에 어쨌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는 옛날에 어쨌다는 얘기를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니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청일점이 있다는 것이. 나는 어디를 가나 늘 홍일점이었는데……. 그게 어떤 자리든지 좀 부담스럽고 과잉 대표되는 거잖아요. 내가 뭘 하면은, '여'학생·'여'자·'여'교수……. 이런 식으로 과잉 대표되는 측면 때문에 신경 쓰이는 점이 많았는데, 이제 세상이 좋아져서 우리 후배들은 그런 짐에서는 벗어났다는 거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2 1970년대 학부생 시절: 강의실 밖, 젠더 불평등, 대학원 진학

질문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참여하신 좌담 「87년 체제 성립 전후 시기의 여성학술운동을 돌아본다」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1] 좌담에서 선생님께서는 학부생 시절이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관악으로 막 옮겨졌을 때라 선배가 거의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우회'와 같은 인문대학 여학생들만의 공부 모임을 시작하면서 앞으로의 학문적 동료들과의 교우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부생 시절에 어떤 분들과 만남을 갖고 어떤 책들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좌담을 보면 학부생 시절에도 젠더 불평등에 대한 문제 의식이 여학생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은 어떠한 일들을 계기로 페미니즘적 문제 의식을 지니게 되셨는지요? 그리고 어떠한 계기로 대학원에 진학할 결심을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78학번이라고 그랬잖아요. 2학년이던 1979년 10월에 박정희가 총

1 한정숙·강이수·박혜경·마정윤·김경희·이남희·이상경·장하진·정영훈·이건정·정현백, 「87년 체제 성립 전후 시기의 여성학술운동을 돌아본다」, 『페미니즘 연구』 제25권 2호, 한국여성연구소, 2025.

맞아서 죽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10월 말에 학교 문 닫았어요. 그러다가 80년 3월에 문을 열었죠. 대학교 3학년 봄에 서울의 봄을 구가하다가 전두환이 등장하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 그때는 '광주 사태'라고 했던, 그걸 겪었죠. 그래서 또 학교 문 닫았어요. 3학년 2학기와 4학년 1·2학기 이때는 워낙 폭압적이어서 학교 안에 사복 경찰, 당시 백골단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들어와 있고 해서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박정희가 죽기 전까지는, 그때 유신 정권 말기여서 는 거의 강의실에 들어간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뜻을 내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동맹 휴업을 결성한다, 시행한다."라고 해서 강의실에 안 들어가고 계속 시위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대학교 1학년을 보냈습니다. 2학년 때는 더 심하고요. 시위는 물론 남학생들과 선배들이 주로 하고, 우리는 둘러서서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다가 흩어지는 그런 게 계속되는 생활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학부 때는 "나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강의실 밖에서 배웠다."였습니다. 이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실제로 강의실에 들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이제 4학년 때 처음 전공 공부, 국문학 공부를 한 것이지, 그 이전에는 어느 과목이든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누가 강의했는지도 모르겠고, 이번에 그 시절 성적표를 한 번 떼봤더니, '내가 이런 과목을 들었어? 누가 강의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학년, 2학년 때, 서클에서 스터디를 했었죠. 책 읽고, 발제하고 토론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는 그런 걸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서클이 2개면 일주일에 세미나가 2개 있는 거고, 서클이 3개면 일주일에 세미나 3개가 있고. 그래서 공부하느라고 너무 바빴어요, 바쁘기는. 70-80년대 학생들이 대학교 들어가면서 '의식화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당연히 의식화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의식화가 되는 거죠.

특별히 그래도 좀 더 기억에 남는 것은, 파울로 프레이리의 『페다고지』라는 책이었어요.[2] 거기에서 의식화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아직 번역 없던

2 파울로 프레이리, 성찬성 역, 『페다고지: 민중교육론』,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979.



[그림 1] 이상경 선생님 (2026년 1월 26일)

시절에 몇 번 복사해서 희미한 영어 책 이런 걸로 읽고…….

'우리 시대의 사상의 은사'라고 하는 리영희 선생님의 『전환 시대의 논리』.[3] 그 책이 준 충격은 엄청났어요. 베트남 전쟁의 실상을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베트남에 우리 군인들이 간 것은 자유를 지키러 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리영희 선생님의 그 글들은, 완전히 다르게 보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태까지 내가 배운 것이 전부 거짓말이었구나.' 교과서도 거짓말, 활자로 된 것은 모두 거짓말. 그래서 '반드시 그 이면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게 됐죠.

또 강재언이라고 하는 재일 한국 역사학자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국근대사연구』라는 책을 일본에서는 1970년에 내셨어요.[4] 그 책이 우리나라의 실학부터 해서 실학에서 개화파로 전통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동학농민전쟁의 진보성, 그 다음에 위정척사파와 항일 의병 운동과의 관계, 그 앞에는 어떻게 됐고, 그 시

3 리영희, 『轉換時代의 論理: 아시아·中國·韓國』, 창작과비평사, 1974.

4 姜在彦, 『韓國近代史研究』, 日本評論社, 1970.

기에는 어떻게 됐는가……. 그 시대를 이렇게 자료에 입각해서, 자세하게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국사 시간에 근대사까지도 잘 내려오지도 않고, 근대사는 독립운동 조금 다루고 말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강재언 선생의 『한국근대사연구』를 보면서, 국제관계라든지 혹은 당시의 어떤 경제 상황들, 그러니까 계급 관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걸 알았던 것도 중요하지만, 강재언 선생의 『한국근대사연구』는 일본어 책이었고, 그래서 일본어를 일주일 만에 배워서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한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완성 일본어 문법」 이런 팜플렛 같은 것을 가지고서, 조사나 동사 활용 정도의 문법만 익힌 뒤, 사전을 찾아가면서 읽는 거지요. 그때 일주일 동안 공부한 일본어 실력으로 그 이후에도 일본어 자료 읽으면서 논문 쓰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재일동포 학자들이라는 사람 대부분 다 조총련 계통이었던 거예요. 이분은 보니까 제주도 출신으로 제주 4·3과 6·25를 겪으면서 밀항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복 형사가 와서 가방 보자고 해서 일본어 책이 나오면, "이게 누구 거냐? 이거 조총련? 빨갱이?" 그러면 이제 경을 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놀드 하우저의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라고 하는 책이, 백낙청 선생 번역으로 나와 있었어요.[5]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미술 작품, 음악, 문학, 이런 것들이 당대 사회의 어떤 배경 속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지 맥락 속에서 설명하는 거여서 굉장히 신선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모르기도 하고 이름만 듣고, 훌륭하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왔는데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해석하는 걸 보여줘서 문학 공부할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때 꾸었던 꿈이, 세상이 좋아진다면 내가 이 책을 들고 유럽을 여행해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그림들을 직접 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국문학쪽으로는 김지하의 작품집을 지하로 돌려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

5 A. 하우저, 백낙청 역, 『文學과 藝術의 社會史: 古代 中世篇』, 창작과비평사, 1974.; A. 하우저, 백낙청·염무웅·반성완 역, 『文學과 藝術의 社會史: 近世篇, 上: 르네쌍스, 매너리즘, 바로끄』, 창작과비평사, 1974.; A. 하우저, 백낙청·염무웅·반성완 역, 『文學과 藝術의 社會史: 近世篇, 下: 로코코, 古典主義, 浪漫主義』, 창작과비평사, 1974.; A. 하우저, 백낙청·염무웅 역, 『文學과 藝術의 社會史: 現代篇』, 창작과비평사, 1974.

다. 김지하 시인이 그때는 신화적 존재였거든요. 70년 5월이네요. 「오적」이라고 하는 작품을 실었다가, 『사상계』가 폐간되고, 김지하가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난리가 난 사건인데요.[6] 김지하 시인은 7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이고, 저는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뒤의 변모는 두고서라도. 김지하 시인의 서정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때 「비어(蜚語)」라든지 「오적」이라든지 이런 걸 소문은 들었는데, 작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완전히 금지되고 일본에서 한글로 인쇄해서 출판해서 작품집이 먼저 나왔어요. 그 시절에 일본의 진보적인 문인들이 구명 운동도 하고,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김지하에 대해서 탄원도 하고 그런 운동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소문으로 들은 '작품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출판된 김지하 작품집도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무튼 너무 여러 번 복사를 거쳐서 뭉개지고 희미해서 제대로 판독도 안 되는 그런 판으로 해서 보고, 주고, 보고, 주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 "너 이거 누구한테 해서 받았어?" 그렇게 해서 이게 일본까지 가서 또 하나의 무슨 조직 사건, 간첩 사건이 되는 이런 세월이었기 때문에, 그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슴 떨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또 김지하 시인의 서정시라든지 「오적」을 읽으면 감정의 격동 같은 게 엄청나죠. 그 시절에는 그게 훨씬 더 컸고, 그래서 굉장히 떨리는 가슴으로 김지하 시인의 작품들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황석영 『객지』[7]나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8] 이런 것들을 다 읽었고, 이제 박완서 작가의 작품들 좀 더 많이 읽었어요. 내가 뭘 읽었나 생각하니까 『휘청거리는 오후』로 박완서 작가가 아주 많이 알려졌거든요.[9]

---

6 1970년 6월 2일 김지하는 「오적」을 통해 정부를 비방하여 북괴를 이롭게 함으로써 반공법 4조 1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김지하뿐만 아니라 신민당의 기관지인 『민주전선』의 편집 관계자 2명도 구속되었는데, 이들은 6월 1일 『민주전선』에 「오적」을 전재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편집자 등 세 명에 구속영장을 발부」, 『동아일보』, 1970.6.2. 이 사건으로 『사상계』는 등록 말소 처분을 당함으로써 폐간되었다. 「사상계 폐간 부당」, 『조선일보』, 1970.10.4.

7 황석영, 『客地: 黃晳映 小說集』, 창작과비평사, 1974.

8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趙世熙 小說集』, 문학과지성사, 1978.

9 박완서, 『휘청거리는 午後: 朴婉緖 長篇小說』, 창작과비평사, 1977.

『살아있는 날의 시작』 이게 그때는 페미니즘 소설이에요.[10] 1980년. 그 뒤에 『서 있는 여자』가 85년.[11] 『서 있는 여자』가 『82년생 김지영』[12]하고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그때 노동자들의 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장의 불빛』[13]이라든지, 『어느 돌멩이의 외침』[14]도 있고, 『서울로 가는 길』[15] 여성 노동자의 수기도 나오고, 물론 『전태일평전』[16]은 그 앞에 있었고, 그래서 이 노동자의, 여성 노동자의 수기를 읽으면서 그야말로 민중문학의 방향이 맞다, 민중문학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황석영이나 조세희의 작품을 읽으면서, 얼마나 노동자가 대상화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도 있고, 그런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쌓여서 그 이후의 제가 형성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구나 그렇겠지만. 그렇죠?

이제 78년 말, 그러니까 1학년 말, 2학년 초쯤에, 인문계 3학년 선배 언니들이, 3학년은 그때는 하늘 같은 선배거든요. 우리를 모아놓고서, "너희들 서울대 인문대 들어오니, 너희들이 잘나서 온 것 같지? 이제 세상을 봐라. 너희가 잘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여기 오기까지는 다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동과 희생 같은 게 있었겠느냐? 우리는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전혜린을 비판하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 시대에는 고등학교 때 전혜린의 수필을 읽으면서 자신의 미래상을 그려보곤 했지요. 유럽에 유학가서 이런저런 걸 해야지, 멋있는 글을 써야지, 그래서 롤모델 같은 느낌이었는데, 선배들이 엘리트주의라고 비판하고 그렇지 않은 삶에 대해 공부하자고 하는 그런 시대 분위기인 거죠. 민중문학을 얘기하던 시대였으니까요.

---

10 박완서, 『(朴婉緖 장편소설)살아있는 날의 시작』, 세계사, 1980.
11 박완서, 『(朴婉緖 장편소설)서있는 여자』, 학원사, 1985.
12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장편소설』, 민음사, 2016.
13 석정남, 『공장의 불빛』, 일월서각, 1984.
14 유동우, 『어느 돌멩이의 외침』, 대화출판사, 1978.
15 송효순, 『서울로 가는 길: 現場手記』, 형성사, 1982.
16 조정래, 『전태일평전』, 돌베개, 1983.

그 다음에 좀 더 강하게 얘기한 것은, 이화여대는 이미 그 이전부터 학생 운동도 활발하게 했는데, 서울대는 그런 활동은 다 남학생들이 하는 거고, 여학생들은 이렇다 할 만한 활동 같은 게 없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대학교 들어올 때는 이대 간 친구들이나 우리나 다 비슷하게 공부하고, 다 리더십도 있고, 예를 들면 반장도 하고 회장도 하는 식으로 다 했었다.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오면서 이대에서는 어떤 조직을 자기가 만들어 나가면서 자신감도 얻고 자기 일들을 자기가 하는데, 우리는 늘 이렇게 남성들의 조력자로, 보조자로만 있게 되면서 성장은커녕 있던 능력도 없어지는 판이다. 그러니 우리가 좀 더 주체적으로 하자, 그래서 여학생들끼리 서클을 하나 만들자, 그렇게 해서 서클을 만든 거죠. '문우회'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이름을 붙인 셈인데, 어느 눈 밝은 사람이 경성제국대학에서 『문우』라는 잡지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17] 어쨌건 평범하게 '문(文)', '우(友)', 인문대였으니까요. 73년까지는 서울대 문리대라고 해서, 동숭동에 있으면서 과별로 모집하고 그래서 그 시절에 문리대에는 그 '문(文)' 자(字) 붙은 과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여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불문과·영문과 이런 데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74년에 계열별 모집이 시작되고 75년 관악캠퍼스로 이사했는데 1974년도 입학생 중에 인문계열에 10명, 사회계열에 2명이고 전체로 여학생 입학자 수가 100명이나 줄었대요.(전체의 14%) 제가 들어간 78학번 때는 사회계열 약 500명 중 여자 한 명. 공대 800명 중에는 여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문계열은 185명 정원 중에 여학생이 19명이었던 것 같아요. 제 위 77학번에는 인문계열의 여학생이 7명이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더 기(氣)를 펴지도 못하고 움츠려 있고, 여기서 먼저 문제의식을 느낀 선배 언니들이 이제 우리들을

17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재학 중이었던 조선인 학생들은 문우회를 조직한 후 조직명을 따라 『문우』를 창간했다. 아직까지 창간호의 실물을 찾지 못해 『문우』의 정확한 창간일은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1927년 2월 20일에 『문우』 4호가 발행되었고, 1924년 5월에 예과가 개설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문우』는 1924년 후반에서 1925년 사이에 창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문우』는 1927년 11월 10일에 통권 5호를 끝으로 종간된다. 유석환, 「근대 문학자료해제 『문우』」,검색일: 2026.3.27. https://www.nl.go.kr/NL/contents/N10902030000.do?schId=EP-0000000000251&schM=view

모아 가지고서 이런 거 하자고 그러고. 우리도 거기서 되게 힘들고 외로우니까 같이 모여서 공부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잠깐 서클 얘기했는데, 그 권위 있는, 명성 있는 언더서클에서는, "우리 서클은 여자 안 받어!"라고 해서 여자들이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좌절한 언니들이, 여학생들만의 서클을 만들 생각을 했던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한 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스터디도 하고, 그때 제가 어떤 책을 읽었냐 그러면, 생각하니까 유명한 책이죠. 시몬느 드 보브아르의 『제 2의 성』,[18] 케이트 밀레트의 『성의 정치학』,[19] 줄리엣 미첼의 『여성의 지위』.[20] 줄리엣 미첼 책이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보브아르 책이나 밀레트 책은, 그냥 개인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서클들에서 하는 사회과학 공부들도 같이 하고요.

제가 가장 기억나는 거는 79년 대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 농촌 활동 간 겁니다, 여학생들끼리. 그 시절에는 서울대 어디, 이대 어디 조인해서 하는 활동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1학기 끝나면 그 시절에 무슨 종강 파티, 그래 가지고 세상에 무슨 '종빙고'? 종강을 빙자한 고고 파티, 이 단어도 갑자기 생각났네요. 아무튼 약간 그런 식의 종강 파티를 해요. 그거는 이제 운동권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인 대학생 문화였지요. 그런 것도 하면, 서울대 국문과면 이대 국문과라든지, 서울여대 국문과라든지 조인해 가지고서, 이쪽 남자, 저쪽 여자. 그런데 나하고 박혜숙 국문과 여학생이 둘이었는데,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자기네들끼리 가서 이렇게 만나서 '종빙고'를 했어요. 어쩌다가 우리가 알게 돼서 규탄을 했더니 그 다음 학기에는 어디 연대에 있는 남자 둘을 어디서 구해 와 가지고서... 아무튼 진짜 옛날 얘기죠. 그런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던 것이, 78-79년. 박정희 죽고, 전두환 들어서고 나서는, 그런 걸 할 여지도 없었으니까 다 그전의 이야기입니다.

---

18 시몬느 드 보부아르, 조흥식 역, 『第二의 性 상』, 을유문화사, 1986.; 시몬느 드 보부아르, 조흥식 역, 『第二의 性 하』, 을유문화사, 1986.

19 케이트 밀레트, 정의숙·조정호 역, 『性의 政治學 上』, 현대사상사, 1975.; 케이트 밀레트, 정의숙·조정호 역, 『性의 政治學 下』, 현대사상사, 1975.

20 줄리엣 미첼, 이형랑·김상희 역, 『여성의 지위』, 동녘, 1984.

‘문우회’는 ‘우리끼리 농촌 활동을 간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가서 답사도 하고 그쪽 마을 청년회하고 교섭해 가지고 우리 여기 와도 되냐 그러면, 뭐 하러 오냐 그러고, 아무튼 어렵게 어렵게 해서, 가서 우리끼리 이제 여러 가지 밭일도 하고, 이런 저런 일을 한 열흘쯤 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했었습니다. 쉽지 않은, 처음 시도한 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쟤들이 도대체 서울대학교 학생들이라고, 그것도 여학생들이, 쟈들이 와 가지고 저가 무슨 일을 한다고, 무슨 옥수수 밭에 김도 매고, 고추밭에 김도 매고, 무슨 담뱃잎도 따고 또 엮고, 아무튼 “아이구— 몇 살이냐?” 물어보고, “아이고 벌써 똥칙간에 아 둘은 빠졌겠다.” 그러니까 이미 애 둘은 낳았을 여자애들이 왜 여기 와서 하냐 그러고. 또 잘못하면, 농민들을 의식하러 온 빨갱이 집단이라고 하는 신고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행동도 굉장히 조심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우리끼리 갔다 왔다는 게 굉장히 뿌듯한 그런 활동이었어요.

이제 대학원을 가는 게... 3학년 2학기는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학교로 돌아온 거죠. 전두환이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광주에 대해서는 소문으로만, 쉬쉬하면서 듣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부끄럽고 슬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세월이었고.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위장 취업’해서 노동 운동을 하기 위해서. 노동 현장, 그러니까 ‘현장’으로들 많이 갔던 거죠. 3학년에서 4학년 사이에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저는 그냥 용기가 없어서? 어떤 종류의 결정을 유예하는 입장에서 대학원으로 진학했다는 것이 아마 솔직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같이 ‘문우회’에서 공부하던 친구들 중에서도, 어떤 친구들은 시위를 주도해서 잡혀가기도 하고, 또 조직사건에 관련돼서 징역을 살기도 하고,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울하고 슬프고 부끄럽고 어찌 해야 될 줄 모르는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결정을... 유예하는 의미로 대학원을 갔고, 또 한편으로는 운동권의 학생 수가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게 되고 학술 운동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대학원에 가서, 학술장에서도 헤게모니를 획득하자, 그때 용어로, “진지를 구축하자.”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논의들도 또 있기도 하고, 그런 저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됐고요.

그래서 대학원 진학할 때 처음으로 전공 서적을 들여다봤네요. 시험 공부를 하려면, 꼭 봐야 되는 책 4권이 있었어요. 정병욱·장덕순·전광용·정한모, 이 네 분이 쓰신 책 한 권씩 읽으면 거기서 보통 출제가 된다는 둥, 그러면서 처음으로 한국 문학 '전체'를 공부한 셈이죠.[21] 그때 시험 공부하면서 한국문학에 대개 어떤 작품들이 있고 어떤 틀로 문학사가 구성되어 있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도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비로소 공부한 것입니다.

그 당시 김윤식 선생님의 강의는 "굉장히 재미있는 강의", "서울대생이면 반드시 한 번은 들어야 될 강의"였습니다. 그래, 뭐가 재미있었나 생각하면, 선생님이 좀 시니컬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못 들었던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카프 쪽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싶은데 알 수 없었던 거, 아예 몰랐지만 알아야 하는 뛰어난 작품, 뛰어난 지성,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해 주셔서, 꼭 국문과 학생이 아니어도 와서들 많이 듣고, 저도 그때 처음으로 김윤식 선생님 강의를 듣고, 선생님 책 다 찾아서 읽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82년에 석사 과정에 입학했는데, 그전까지는 대학원 강의를 아까 얘기했던 그 네 분 교수님만 하셨대요. 원로 교수님 네 분. 그런데 제가 대학원 가면서부터 김윤식 선생님하고 김용직 선생님이 대학원 강의를 처음 맡게 되셨어요. 아득한 옛날이죠? 김용직 선생님은 전공이 시이시고, 김윤식 선생님 소설이시고 그 다음에 한계전 선생님이 비평이시고. 대학원 입학 시험을 치고 들어갔는데, 저하고 같이 시험을 쳤던 78학번의 우리 국문과 남학생들은 입학시험에 떨어졌어요. 여학생 2명만 붙은 거지요. 지금은 그런 거 없는데, 그때는 서울대 국문과 출신 학생이 얼마나 들어오는가, 그 학생들이 그때 용어로 '방돌이'도 해서, 이제 '학통'을 이어간다, '학맥'을 이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이었는데, "본과에서 여학생 두 명만 들어왔대.", "우리 과의 '학통'이 끊어지게 생겼어." 어느 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건너 들었어요. 그 부분이 제가 국문과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처음으로 부딪힌 여자라는 벽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내가 공부하고 내가

21 정병욱,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1976.; 장덕순, 『한국문학사』, 동화문화사, 1975.; 정한모, 『한국현대시사』, 일지사, 1974.; 전광용 교수의 신소설 관련 연구는 대학원 입시 공부할 때는 논문을 찾아 읽었고 그 뒤에 『신소설연구』 (새문사, 1986)가 출간되었다.

시험 쳐서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벽 같은 것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느낄 일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굉장히 강하게 느꼈죠.

박혜숙이랑 둘이서 같이 공부해서 대학원 진학한 뒤에는 그 친구는 고전문학을, 저는 현대문학을 전공하기로 했는데, 고전문학 쪽 원로 교수님께서 그 친구한테, "자네는 규방 가사를 공부하시게." 그러셨대요. 그리고 나는 아무도 부르거나, 뭐 하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치지도외(置之度外)였을 것 같아요.

3 문학 연구자로서의 성장 과정

3.1 1980년대 여성사연구회 모임과 최초의 페미니즘 비평

질문 1980년대 선생님의 연구 활동에서 여성사연구회 모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임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작은 셋방들을 전전하면서 지긋지긋하리만큼 싸우면서 공부하셨다는 말씀을 통해, 선생님께서 1980년대에 얼마나 큰 열정으로 학술 운동에 임하셨는지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성과 중 하나가 선생님께서 무크지 『여성』에 발표하신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문학의 현실」이라는 글일 것 같습니다.[22] 이 글은 해방 이후 한국에서 거의 처음으로 시도된 페미니즘 비평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문단에서 좋은 작가라고 평가받고 있었던 남성 작가들을 페미니즘적 비평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이 글이 어떠한 계기로 나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글을 쓰는 과정은 어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학 전공자로서 역사학이나 사회학 등 서로 다른 학문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여성사연구회'라고 하는 명칭은 좀 뒤에 붙여진 거예요. 지금은 '한

22 이상경·정은희·박혜숙·박은하,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문학의 현실」, 『여성』 1호, 창작과비평사, 1985.

국여성연구소'라는 명칭으로 되었습니다. 공부를 왜 그렇게 방을 전전하면서 했냐, 그거는 꼭 이 모임뿐만이 아니라, 워낙 엄혹한 시절이어서, 강의실? 도서관의 스터디룸? 이런 데서 못 해요, 일체. 그러니까 결국은 친구 자취방에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한 주일에 한 번씩 젊은 애들이 드나들면, 신고가 들어가기도 하죠. 쟤들 수상하다고…….

노동 운동한다는 사람들도 노동자 모임 하면 좀 괜찮은 자취방이 제일 좋은 모임 장소이기도 했지요. 그때 3학년 겨울방학 때 이화동의 조그만 방을 한 달 얻었어요. 한 달 얻어서, 집중 스터디를 했어요. 그때 스터디해서 현장으로 갈 사람은 현장으로 가고 하는, 사전 공부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먹고 자면서 하거나, 아니면 아침에 와서 밤에 가거나 그렇게 했지요. 이화동 쪽이 가파른 비탈이어서 미끄러지고, 춥고 여러 가지 추억이 있네요. 그런 건 이제 약간 예외적으로 합숙 스터디를 한 것이고, 안 그런 경우에는 자취방에서 공부했습니다. 지금 이 '여성사연구회' 모임 초창기는, 그때 중심이 됐던 친구가 조그마한 아파트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 부잣집 딸이었던 것 같아요.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오는 학생은, 특히 여학생인 경우는, 딸 고생하면 안 되니까, 아파트를 마련해 준 부모님이 있었어요.

'여성사 연구회' 초기 형태가 학술적인 모임하고 운동하는 모임이 섞여 있었어요. 이대 쪽에서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 서울대 쪽에서도 여학생들 중에서 학생운동하다가 노동 운동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나처럼 대학원에 있으면서 여성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 어차피 그 이전에 서로 이렇게 저렇게 알던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중심그룹에서는 그『여성』이라는 잡지를 노동 운동,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이 기관지 형태로 구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잡지에 보면 여성 운동의 이론에 대해서 설파하는 글이 있는데[23] 그게 새로운 여성 운동의 제일 첫 글로 평가됩니다. 여성학이나 그런 쪽에서는.

문학팀은 문학 공부해서 쓰고 하는 식으로 좀 나누었던 거죠. 그래서「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문학의 현실」, 이 글 자체는 문자 그대로 '우리 여성의 눈으로 한국 문학을 보자.' 진짜 정직하게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같이 했던 사람이 국

23 심정인,「여성운동의 방향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여성』1호, 창작과비평사, 1985.

문과 여학생 4명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고전 문학하는 박혜숙 그 다음에 77학번이었던 정은희 선배가 있었는데 석사 하다가 그만둬버리고 나가서 카톨릭 운동에 힘쓴 그런 선배고요. 또 한 명은 79학번에 하윤숙이라고, 이 친구는 인문대 학보 편집실에 있었어요. 그랬다가 대학원 진학하지 않고 현장 운동 쪽에 갔다가 나와서 지금은 번역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글에서는 '박은하'라고 필명을 썼습니다.

작품을 고를 때 이왕이면 기존의 문단에서 훌륭하다고 평가받은 것, 혹은 민중문학에서 훌륭하다고 하는 것, 이 시대에 최고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여성의 눈으로 다시 읽자. 정전에 도전하자.

같이 읽고 논의하고, 이거는 정말로 공동 집필을 했어요. 어느 부분을 누가 쓰면 같이 읽으면서 여기는 이상하다 고치라 그러고,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게요. 글을 쓰는 거니까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개성이 있으니, 사이가 좀 안 좋아지기도 하고. 다 해놓고 같이 수정하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결국 완성을 했는데, 어느 파트를 누가 썼는지 구분이 안 되고 기억도 안 나요. 그 작업 끝나고 나서, 내가 '공동 집필 이거 다시는 안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이거 무리구나. 우리가 정말 공동 집필을 꿈꾸었는데, 쉽지 않구나.' 시각을 맞추는 건 기본인데, 어휘나 문체까지 서로 수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이건 아니다.'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공동 집필의 과정은 좀 힘들었지만, 서로 굉장히 친했던 친구들이고, 그 작업 자체는 매우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문단 판의 평론가들, 우리가 아는 남자 선배들인 거죠. 그분들이 약간 빈정거리는 투로 말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거를?", "아이고, 무섭다."라거나, "국문과 그 시끄러운 여자들"이라거나, 그런 투로. 진지하게 뭐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냥 뒷담화로 듣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김지하를 비판하는 글이 하나 실렸어요.[24] 김지하의 '생명 사상'을 비판하는……. 김지하가 감옥살이하고 나와서 건강이 좀 안 좋지만 아직도 70년대

24 이선희, 「여성해방관을 통해 본 김지하의 생명사상」, 『여성』 1호, 창작과비평사, 1985.

신화의 아우라가 있는 중인데, 나와서 『대설 남』도 쓰고,[25] '생명'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김지하가 어머니, 모성 얘기하고, 생명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정말 여성에 대해 무언가를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여성을 정말 전통적인 감각 속에 다시 가두려고 하는 그런 거였고,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썼는데 그게 더 충격적이었던가 봐요. 김지하 시인이 그거 읽고 굉장히 언짢아했다는 뒷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뒤의 김지하를 보면 그 글이 김지하의 앞날을 예견한 거죠. 생명 타령하다가 모성 타령하다가, 박근혜 지지하고 그렇게 가잖아요. 단지 그대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문학 연구자로서 여성학을 하는 거는 아무 갈등이 없었어요. 나는 '여성해방문학'을 하겠다는 게 입장이 아주 분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해방에 기여하는 문학을 한다, 문학 연구를 하고 글을 쓰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여성이라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여서 그건 특별히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학 하는 친구들은 주로 사회학 베이스여서 그렇게 많이 뭘 주고받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학이라는 게 서구, 미국에서 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막상 그때는 아직 내가 그걸 가지고 나의 문제를 풀 만한 그런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줄리엣 미첼의 『여성의 지위』라든지,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지. 『인간 문제』[26]도 보려면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어떻게 얽혀 돌아가고 있는지 그게 여성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런 공부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역사 쪽은 사실 근대문학, 근대사, 다 냉전 체제 하에서 정식으로는 공부 안 했잖아요. 가르치지도 않았고. 1920년대 되면, 사회주의 부분이 굉장히 큰데 그걸 모르고서는 그 시대를 다룰 수 없는데, 그걸 다룬다는 건 상당한 위험 부담도 있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근대사를 나는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 그냥 공부했던 셈이지요. 아까 강재언 선생의 『한국근대사연구』를 읽었던 것처럼. 내가 국문과여서가 아니고 국사학과도 마찬가지였어요. 국사학과 친

25 김지하, 『大設 南 1』, 창작과비평사, 1982.; 김지하, 『大設 南 2』, 창작과비평사, 1984.; 김지하, 『大設 南 3』, 창작과비평사, 1985.

26 강경애, 『인간 문제』, 『동아일보』, 1934.8.1.-12.22.

구들도 다 그런 식으로 스터디하고, 자료 봐가면서 그 시대 역사를 공부했거든요. 거기다가 여성사로 오면 아예 없어요, 연구가. 그러니까 강경애를 봐도 그 시대에, 다른 여성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보고 싶은데, 여성사로 참고할 만한 연구가 전혀 없었어요. 다 그 앞 시대에서 끝나고.

옛날 성신여대에 계셨던 박용옥 교수님이 『한국근대여성운동사연구』라는 걸 쓰셨어요.[27] 독립운동에 관계한 여성들에 대해 쓰신 거라 1920년대 민족주의 여성 운동 정도에서 끝나지요.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강경애나 사회주의 여성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모지였으니 내가 연구하는 거죠. 그 시절에는 카프문학 운동, 프로문학 운동 연구도 그랬습니다. 국사학과 쪽에서도 그쪽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문학 쪽에서 일제 시대에 나온 잡지들 중에 작가들 찾아서 자료를 읽으면서 먼저 가는데, 역사는 조금 더 늦게 왔어요, 그때는. 그래서 역사와 문학 사이를 넘나드는 건 저한테는 갈등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작품도 읽어야 되고 연보도 정리해야 되고, 거기다가 작품 분석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아까 그 '문우회'에서 저하고 고전 문학하는 박혜숙 선생이 국문과 대학원으로 진학했고, 그 다음에 남화숙 선생이 국사학과 대학원으로 갔어요. 이 친구가 석사를 근우회 연구로 썼어요.[28] 근우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는 여성사를 하고, 나는 여성문학을 연구하면 우리 행복하겠다, 그런 얘기했는데, 그 친구는 미국에 유학 가서 '한국 노동 운동사'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네가 여성사를 했으면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부했을 만큼 여성사 쪽에 사람이 없었어요. (남화숙은 최근에 한국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은 『체공녀 연대기, 1931~2011』[29]을 냈다.)

그게 왜 그랬나 생각하니까, 일단 서울대 쪽은 국사학과에도 여학생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예 여학생이 한 명도 없던 해도 여러 번 있고. 이대 쪽에서 논문들이 좀 나오고 하는데, 이대에서 나오는 논문들은, 이대가 기본적으로 기독교 학교

27 박용옥, 『韓國近代女性運動史硏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28 남화숙, 「1920년대 여성운동에서의 협동전선론과 근우회」,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89.

29 남화숙, 『체공녀 연대기, 1931~2011』, 후마니타스, 2024.

여서, 기독교 여성 운동 쪽으로 주로 나오고, 사회주의 여성 운동 쪽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3.2 1980년대 진보적 학술 운동: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학사연구소 활동

질문 선생님의 학술 운동에서 역사문제연구소의 문학사 연구 모임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사연구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 모임의 결성 계기, 목표, 공부 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바가 없어 더욱 궁금한데요. 이 모임에서 인생과 학문의 동반자이신 김재용 선생님을 만나셨기에 이때의 활동이 선생님께 더욱 각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모임에서 어떤 분들과 함께 공부하셨는지, 같이 공부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문학사 연구 모임에서 처음으로 내셨던 책이 『카프문학운동연구』였는데요.[30] 국내외적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가시화되었던 시기에 학술 운동의 차원에서 연구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셨는지요? 연구하는 대상이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은 없으셨는지요? 그런 두려움이 있으셨다면 이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85년 '역사 문제 연구소'가 시작되었는데, '학술 운동의 차원'에서, 그 시기에 그런 학술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역사 쪽에서 새롭게 연구하자고 해서 박원순, 임헌영 선생님 같은 분들이 중심이 되어 '역사 문제 연구소'가 생기고 '근대사 연구팀' 만들고, 그 다음에 '해방기 연구 모임' 만들고 또 이 '문학사 연구 모임'. 이렇게 3개를 만든 거예요. 문학사, 이거는 카프문학, 프로문학을 한다는 거고. 근대사도 안 되어 있으니까 '근대사 연구 모임', 그 다음

30 역사문제연구소 문학사연구모임, 『카프문학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89.

에 '해방' 그래서 『해방 전후사의 인식』 이런 것들이 그 흐름 속에서 다 나온 거 잖아요.[31]

임헌영 선생님이 문학 평론가였던 홍정선 교수, 김철 교수 그분들을 만나서 당신 후배들 모아서 공부합시다, 이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홍정선 교수는 서울대에서 공부했고 그때는 한신대 교수였나? 김철 교수는 연대에서 공부하고 그때는 교원대 교수. 두 분이 서로 친하기도 하셔서, 홍정선 교수가 서울대 쪽에서 저하고, 채호석, 전승주, 정홍섭을 데리고 가고, 김철 교수가 연대 쪽에서 김재용하고 임진영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9명이 두 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프로 문학 쪽 자료 읽고, 그 자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작업을 했죠. 그리고 그때는, 끝나고 늘 저녁 먹고 술 마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임헌영, 홍정선, 김철, 이 선배들이 늘, 사준 거예요. 내가 그 점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 뒤로 서로 가는 길이 조금씩, 많이, 달라졌지만.

사실 이 모임이 국문학 연구에서 그 당시로서는 학연을 뛰어넘는, 거의 최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전에 학교 안에, 국문과에 공부 모임 같은 게 있었나? 얼핏 조금 있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서울대는 서울대, 연대는 연대, 다른 데도 있었겠죠? 어쨌건 서울대하고 연대가 만난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연대는 전통적으로 창작이 강하고 연구는 좀 약해서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연대 국문과 여학생들이, 페미니즘 비평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했지요. 그래서 학교를 넘어서 만난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2년을 두 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공부를 했으니까, 나름 열심히 한 거고, 그래서 『카프문학운동연구』를 쓰자고 했는데, 그때는 꼭지를 나눠서 썼어요. 이 팀은 전부 다 소설하고, 평론 공부하는 팀이었고, 그래서 다른 장르는 나중에 그 부분만 다른 분들께 좀 써달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책도 보시면 어느 꼭지를 누가 썼는지 필자가 없어요. 이때의 공동작업은 저번에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문학의 현실」을 쓸 때 만큼 밀도가 있지는 못했어요. 그때는 말 그대로 같이 쓴

31 송건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1979.; 강만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2』, 한길사, 1985.; 박현채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1987.; 최장집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4』, 한길사, 1989.; 김남식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5』, 한길사, 1989.; 박명림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6』, 한길사, 1989.

셈인데 이거는 각자 자기 맡은 꼭지를 쓰고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공동 연구, 공동 작업을 한다는 그 뜻에 맞춰서 각 꼭지의 필자를 밝히지 않고, 이 전체에 대해서, 우리 전체가 책임진다 그렇게 썼었어요. 즐겁게 공부한 거죠.

우리가 카프문학 운동을 공부하니까, 이거는 분단하고 직결되어 있잖아요. 카프 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월북했기 때문에 그 연속성도 있고,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현재도 여전히 분단 체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문학사도 그때까지 문학사라는 게 반쪽 문학사였잖아요. 남쪽에서 쓴 문학사하고, 북쪽에서 쓴 문학사 이렇게 놓으면 겹치는 작가나 작품이 거의 없어요. 누구 정도 겹칠까. 이상화? 나도향? 겨우 이 정도나 겹치는 거지, 그러니까 양쪽을 합쳐야지 온전한 게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민족 문제가 여전히 분단이라는 걸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물론 사회주의권 붕괴하고 냉전 체제 해체라는 것이 큰 충격이긴 했지만, 한국에서는 냉전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의식은 여전해서 뭘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질문 『한국근대민족문학사』도 공동 연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32] 이 책을 집필하시게 된 계기와 과정에 대해서도 들려주십시오.

답변 『한국근대민족문학사』는 그 이전까지 계속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이 '이거 반쪽의 문학사'다. 그러니까 여성문학뿐만 아니라 이쪽도 발굴과 복원을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문학사를 새로 쓰자. 그 이전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문학사는 백철의 『조선신문학사조사』[33] 그 다음에 조연현의 『한국현대문

32 김재용·이상경·오성호·하정일 외,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3. 당시 『한국근대민족문학사』는 "30대 중반의 젊은 연구자들이" "80년대의 진보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19세기 말 이후 해방 직전까지의 한국근대문학의 흐름을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으며, 분단 극복 이후 쓰여질 통일문학사를 염두에 두고" 기획한 문학사라는 점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젊은 시각' 한국문학사 나온다 '한국근대민족문학…'」, 『한겨레』, 1993.12.15.

33 백철, 『朝鮮新文學思潮史: 近代篇』, 수선사, 1947.; 백철, 『朝鮮新文學思潮史: 現代篇』, 백

학사』[34] 그리고 김윤식·김현의 『한국문학사』[35] 정도였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장덕순 교수님이 원래 구비문학 전공이신데, 그분의 『한국문학사』[36]를 보면 뒤에 근현대문학이 있는데 오히려 거기가 아주 적은 분량이지만 우리 감각에 조금 더 맞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을 해야 되겠다. 새로 쓰자.

그때는 저하고 김재용 선생하고, 연세대학교에 평론 전공하던 하정일 선생, 시 전공하던 오성호 선생. 그렇게 넷이서 공부하고 썼어요. 저희가 89년 초에 결혼하고 나서 신혼집에서 한 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공부했던 겁니다. 큰 줄거리는 같이 맞췄지만 각 장르는 각자 쓰는 형식으로. 목차와 초고는 같이 검토했지요. 그렇게 해서 역시 그것도 공동 작업이었어요. 거기까지가 공동 작업인 것 같아요.



한겨레 책세상
책을 과거 미래를 열다

10면 내인생의 책들: 한학자 임창순씨
11면 참석한저작집 일어판 오역 투성이
12면 해외서책: 비운의 프랑스작가 로셸 서한집

하정일·김재용·오성호·이상경(왼쪽부터)씨 등 30대 중반의 젊은 연구진들이, 김현·김윤식의 《한국문학사》 이래 20년 만의 첫 근대문학사인 《한국근대민족문학사》를 공동으로 펴냈다. 진정영 기자

'젊은시각' 한국문학사 나온다

'한국근대민족문학사' 주말께 발간

김재용씨 등 30대학자 4명 집필
해방전까지의 흐름 진보적 조명

30대 중반의 젊은 연구자들이 새롭게 쓴 한국문학사가 나온다.

주말께 한길사에서 나올 《한국근대민족문학사》(4·6판 전1권)는 김재용(33)·이상경(33)·오성호(36)·하정일(34)씨 등 연세대와 서울대 국문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문학연구와 평론활동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장학자들이다.

이들이 햇수로 5년간의 준비를 거쳐 마침내 선보이는 《한국근대민족문학사》는 김현·김윤식 공저의 《한국문학사》(1973) 이후 20년 만에 나온 비중있는 근대문학사통사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 사이 조동일 교수(서울대)의 《한국문학통사》(전5권) 등의 작업이 있었고, 윤홍로(안동대) 권영민 교수(서울대)·정호웅 교수(명남대)의 《한국소설사》 등의 굵직굵직한 성과가 나왔지만, 《한국근대민족문학사》는 80년대의 진보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19세기말 이후 해방 직전까지의 한국근대문학의 흐름을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으며, 분단 극복 이후 쓰게될 통일문학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고유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 책은 구한말 이후 해방 직전까지를 다섯개의 시기로 나누고(민족어의 형성과 근대문학의 성립'(19세기말~1910), '계몽주의 문학의 심장과 굴절'(1910~1919), '개인과 사회의 변증법'(1919~1927), '프로문학의 시대'(1927~1935), '파시즘의 강압와 민족문학의 위기'(1935~1945)), 각 시기마다 총론(김재용)·소설(이상경)·시(오성호)·평론(하정일)의 장르별 서술을 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또 시기별 총론도 '사회적 배경과 '문학적 특질'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한국근대민족문학사》의 특성은 이 책이 앞세대 연구자들의 문학사를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기왕의 문학사들이 냉전논리에 깊게 침윤되어 있으며, 정치적·경제적 배경과 문학사의 진행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필연적 연관을 놓치거나 소홀히하고 있다는 점을 주로 문제삼는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임화의 《신문학사》(1939~1941)에 대해 "근대문학사에 대한 과학적 접근의 중요한 첫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해방 직후에 나온 백철의 (조선신문학사조사)(1947~1949)에 대해서는 "서구 문학에서 형성된 다양한 문예사조가 예리 결로로 우리 문학에 던져짐으로써 그 영향을 받아 우리 근대문학이 변형하고 발전하는 것으로 보는" 등 비주체적이며 기계론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 한국전쟁 이후 냉전체제가 굳어지기 시작한 시기에 나온 조연현의 《한국문학사》(1956)는 변화하는 현실의 역사적 연관 위에서 문학을 해명하고자 하는 문학사의 방법과는 어울리기 힘든 '순수문학론'에 입각해 쓰여진데다 중요한 작가와 작품들을 이념적인 이유로 서술에서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김현·김윤식의 《한국문학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 젊은 연구자들과 비슷한 문제의식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책 역시 이들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두 김씨는 식민사관의 극복을 화두로 끊임없이 설정하고 국사학계 일각의 '자본주의 맹아론'을 무반성적으로 문학사에 도입함으며, 이런 '외재과정'으로 인해 근대민족문학 심림의 전제조건인 민족어(=언문일치)의 중요성을 홀작했다는 것이 젊은 연구자들의 주장이다.

《한국근대민족문학사》의 성격을 말해주는 특징을 좀에는 소김동인의 문학사적 의의를 거의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 △20년대 초반 '백조'파 문학의 도피적·퇴폐적 정향을 "개성의 자각과 사회와의 부조화에서 비롯되는 절망감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는 점, 그리고 △30년대 북한의 이른바 '항일혁명문학'을 논의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이 들어 있다.

본문과 참고문헌, 찾아보기 등을 합해 9백쪽이 훨씬 넘는 이 책에는 또 30여쪽의 컬러 화보가 실릴예정이다. 이 가운데는 이광수, 이북명, 한설야 등 그동안 구하기 어려웠던 월북 문인들의 사진이 포함돼 있다.

《한국근대민족문학사》의 저자들은 1948년 이후 90년대까지를 대상으로 한 후속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저자 김씨는 "90년대 두권으로 발간할 계획인 이 책에는 북한 문학 부분도 남한 부분과 거의 대등하게 포함시킬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필자들이 이번 말한 것은 중국 연변대 장기 체류하면서 자료를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봉 기자

[그림 2] 『한국근대민족문학사』 발간을 소개하는 『한겨레』 기사(1993.12.15.)

제가 문학사 쓰면서 즐거웠던 일이요? 소설 파트를 맡아서 계몽기부터 45년까지 쭉 쓰는데, 하나는 여성 작가를 내가 넣어야겠다 생각했는데 93년에는 제가 강경애밖에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서정자 선생님이 「경희」[37]를 발

양당, 1949.

34 조연현, 『韓國現代文學史』, 현대문학사, 1956.

35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36 장덕순, 『韓國文學史』, 동화문화사, 1975.

37 나혜석, 「경희」, 『여자계』, 1918.3. 서정자 선생님의 「경희」 발굴과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김은하·남은혜·류진희·장문석·김효재·이무언, 「여성문학의 기원을 함께 되걷다-서정자 선생님과의 대화」, 『여성문학연구』 제6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5, 466-

굴해서 내놓으셔 가지고, 「경희」를 읽으니까 작품이 또 만만치 않아서, 강경애는 좀 많이 넣고 「경희」는 그냥 짧게 넣고 그리고 다른 작가는 못 넣었어요. 그 전에 내가 읽은 문학사에서는 그 시기에 여자 작가라고 하면, 나혜석은 작가로 들어오지도 않고, 김명순, 김일엽은 그냥 이름만 스쳐 지나가고 노천명, 모윤숙, 최정희가 문학사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귀퉁이에 동반자 작가라고 하면서 박화성과 강경애를 한 줄로 언급하고. 근데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 내 식으로 쓰겠다고 해서 나혜석하고 강경애를, 문학사에 크게, 특히 강경애는 좀 더 크게 넣었지요.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에, 이런 문학을 문학이라고 할까,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한 것이 김동인의 작품입니다. 그때 김동인의 「김연실전」[38]도 보고, 「붉은 산」[39]도, 김동인 작품은 보기만 하면 다 불쾌하잖아요. 그것도 재주고, 그 사람의 개성이죠. 그걸 높이 평가하면 평가할 수 있는데, 나는 김동인을 내가 쓰는 문학사에 안 넣겠다 하고 '장엄하게' 안 넣었거든요. 나는 김동인이 우리 문학사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고서는 안 넣었어요. 그런 식으로 문학사를 썼습니다.

질문 민족문학사연구소 활동에 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민족문학사연구소도 공식적으로는 90년에 출범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 87년? 그 즈음부터 야당 국문과? 재야 국문과? 이런 식으로 서울대에 계시는 교수님들 말고, 임형택, 최원식 이런 분들이랑,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이 서로 만나서 공부하고 입장 맞춰보고 정보도 나누기도 하고 그런 거 했었어요. 고전 문학은 임형택 선생님이라든지, 송재소 선생님이라든지 성균관대 김시업 선생님, 고대에 김흥규 선생님, 연대에 김영 선생님 이런 분들이 나오시고, 그 밑에 석사·박사 과정의 학생들이 같이 있었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모임을 하다가, 이게 이제 '민족문학사연구소'

471면.

38 김동인, 「김연실전」, 『문장』, 1939.3.

39 김동인, 「붉은 산」, 『삼천리』, 1932.4.

로 된거죠. '민족문학사연구소'도 똑같이 학연을 넘어서서 여러 학교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제일 처음 나온 책이 『북한의 우리문학사 인식』[40]입니다. 해금되면서 북한에서 쓴 문학사들이 남쪽에서 정식 출간이 되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한국 문학사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걸 쭉 공부해서 정리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또 우리는 공동 작업이라고 해서 꼭지에 필자 이름이 없어요. 그때 제가 소설 파트를 20년대 소설, 30년대 소설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두 개 썼던 것 같네요.

이거 할 때도 격주에 한 번씩은 만났겠죠? 고전문학하고 현대문학이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학부하고 대학원 때는 다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혹은 시위에도 가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니까 서로 친했던 것이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전문학은 약간 윗세대잖아요. 현대문학은 약간 아래쪽이고. 또 임형택 선생님, 최원식 선생님, 두 분이 우리 문학은 고전과 현대가 쭉 이어져야 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입장이 굉장히 강하셔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분과로 거의 갈라졌죠.

3.3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여성으로서의 삶과 연구자로서의 삶

질문 선생님께서는 김재용 선생님과 결혼하시고 따님도 낳으셨는데요. 특히 박사학위논문을 쓰실 때 출산하시고 육아도 병행하셨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삶과 연구자로서의 삶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85년에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87년에 수료했잖아요. 그때까지는 논문을 별로 안 쓰고 다른 걸 많이 했죠. '문학사연구모임' 공부도 하고. 제가 다닐 때 석사·박사 때는, 코스웍(coursework)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당장에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저는 그때 한문도 공부하러 다니고 하면서, 학위 논문은 좀 멀리 있

40 민족문학사연구소, 『북한의 우리문학사 인식』, 창작과비평사, 1991.

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기영을 써야지 하고 자료들도 보고 읽으려고 준비해 놨지만, 본격적으로 뭘 안 했는데. 인생의, 운명의 장난으로 1989년에 결혼을 하고, 또 계획에 없이 임신하게 되었으니 초조해졌어요. 어른들이 애가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족문학사연구소에서 하는 세미나도 쫓아다니고, 문학사 쓰기 위한 공부도 하고, 또 내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엄청 바쁘게 다녀서, 그때 민족문학사연구소 쪽에서 공부하는 어떤 친구가, "그 애는 나올 때 '카프 카프'하고 나오겠다."라고 그랬었어요.

출산하고, 우리는 둘 다 지방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에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친정 어머니께서 그전에 "너, 결혼하면 내가 애는 키워줄게." 그랬는데, 내가 너무 늦게 결혼해서 이미 어머니는 나이가 드셨어요. 시부모님도 그런 뜻을 비추셨는데, 내가 그런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어요. '다들 애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내 애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처음에 낳아서 얼마 동안은 혼자서 키웠어요. 그러다가 신혼 살림을 차렸던 과천에 비슷한 시기에 결혼해서 아이가 비슷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도 문우회였네요!) 그러니까 엄마·아빠, 엄마·아빠 해서 시간강사 네 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강사 네 명이 강의 나가고 할 때, 서로 순번을 짜서 애를 봐주는 걸 몇 달간 했어요, 한 여섯 달 쯤. 그래서 '공동 육아'를 한다고, 새로운 육아방식이라고 조그마한 신문 귀퉁이에 나기도 하고 그랬네요.

그런데 논문을 쓰려고 생각하니까 집중된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91년 여름 무렵 아이가 10개월 됐을 때, 과천에 있는 온갖 놀이방을 다 뒤져서 놀이방에 보냈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비정한 엄마죠? 그때는 애가 돌이 지나면 엄마 얼굴을 알아보고 낯가림해서 못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하도 들어서, 그러면 낯가림하기 전에 나는 떼놓아야겠다 생각하고 10개월부터 놀이방에 맡기기 시작했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맡기고 나서 처음에는 남편이랑 둘이서 긴장해서 우리가 애를 저기다 맡겨놓고 놀아서 되겠는가, 그러면서 열심히, 그때는 써야 되니까, 그렇게 썼어요. 92년 여름에 둘이 동시에 박사학위를 받았지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아이가 있고, 내가 공부도 하고 어디 강의도 나가려고 하니까, 애 맡길 데가 너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반공 도덕 시간에 배운, 북한에서 애만 낳으면 탁아소에 보내서, 엄마한테서 떼어서 사상 교육을 시킨

다고 하는, 그것의 이면이 뭐였는지를……. '아, 우리한테 탁아소가 필요하구나. 탁아소, 아이 맡기는 데.' 그렇게 생각해서 과천에 있을 때는 같이 애 키우던 친구랑 주변 사람 몇 명이서 과천시의회에 시립 탁아소 설립 청원 운동을 했어요. 서명 받아가지고 제출하고 시의회에서 논의하는 날 유모차에 애 태우고 거기 가서 방청도 하고 그랬는데 시의회에서는 아예 논의에 올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사노동의 사회화라는 것도, 훨씬 더 절실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정말로 이제 페미니즘이 어떠해야 되는지, 나한테 그게 뭔지 그런 걸 절실하게 생각하게 됐죠. 사실 그 이전에도 물론 연구하고 글도 쓰고 했지만 결혼하고 출산하면서는 삶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절실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3.4 1990년대 문학 비평가로서의 활동

질문 1990년대에 선생님께서 쓰신 비평들을 보면, 1990년대 문학장의 '주류'라고 할 수 있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해체주의와 비판적 거리를 두고 계셨음이 확인됩니다. 당시 '여성적 글쓰기'를 비롯하여 포스트 모더니즘에 근거한 비평 이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음을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선생님의 포지션은 1990년대 문단에서 '이례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990년대 문단에서 선생님의 비평 활동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는 2000년대부터는 현장 평론은 안 한 것 같아요. 주로 '문학사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좀 더 강하게 가지게 된 셈이지요. 90년대 들어와서는 박사학위 논문 쓰고. 93년 이후, 근데 그 93년이라는 게 그 당시는 63년생이라고 해서, 공지영, 공선옥, 신경숙, 은희경 또 김형경. 아무튼 이런 여성 작가들이 대거 등장하고, 대중적으로 굉장히 큰 호소력을 가졌잖아요. 그 시절에 공지영 작가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41] 그게 엄청나게 팔렸거든요. 『82년생 김지영』 급이었

41 공지영,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문예마당, 1993.



13 1997년 2월 18일 화요일 경향신문

신경숙씨는 자기중심적 글쓰기에서 벗어나 많은 인간관계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신씨의 작품들.

신경숙 소설 "소녀적 감수성 벗어나야"

문학평론가 이상경씨 「소설과 사상」서 비판

"「여성적 글쓰기」도 가부장적 관습의 산물에 불과"

작가 신경숙씨의 소설은 자기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소녀적 감수성에 젖어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독특한 문체로 평가받아온 신씨의 여성적 글쓰기도 억압받는 여성의 삶을 해방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먼, 관습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재생산한 것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학평론가 이상경씨(한국과학기술대 교수)는 다음주 출간될 계간 「소설과 사상」 봄호에 발표한 「우리시대의 작가연구-신경숙론」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작가는 편협한 체험적 글쓰기에서 벗어나 주변의 인간관계와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삶을 풍부하게 그려내는 쪽으로 변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성 평론가의 이같은 주장은 「90년대를 문학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작가」 「여성적 글쓰기의 전범」 등으로 평가받아온 신씨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이자 비판적 논의여서 주목된다. 첫 창작집 「겨울우화」에서 최근 출간된 「오래전 집을 떠날때」에 이르기까지 신씨의 모든 작품을 분석한 이씨는 신씨 소설의 특징을 「말해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글쓰기」라고 요약했다. 80년대에는 말해질 수 없었던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말하기 위해 작가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내면을 성찰하는 구성방식을 취하는가 하면, 말없음표·쉼표·도치법 등을 자주 사용하며 다양한 문체실험을 보여준다는 것. 또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 어눌한 말투와 말더듬기 등을 동원하며 작가의 개성적인 문체를 확립했다고 이씨는 평가했다.

그러나 작품은 형식상의 발전이 내면의 심화를 동반하지 못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생동감있고 감동적으로 그려내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이씨는 지적했다. 창작집 「풍금이…」에 실린 「멀리, 끝없는 길 위에」에서 화자인 「나」가 다른 사람과 관계맺는 것을 회피하는 폐쇄성을 보인다든지, 「외딴 방」에서 자살에 이르는 희재언니의 삶의 여정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은 신씨의 작품들이 소녀적 감수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라는 것. 이씨는 이러한 소녀적 감수성과 자기 중심적 시각은 10여년에 걸친 작품 전체에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신씨가 풍요로운 유년기와 삭막한 서울 생활을 대비시키며 존재의 고독감을 그리는 작가라는 일부의 평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유년의 기억속에서 외로움의 기원을 찾고 있는 작가는 현대인의 숙명적 외로움을 이미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씨는 창작집 「오래전…」에 나타나는 환상이나 귀기(鬼氣)의 이미지는 섬뜩함을 통해 일상의 외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작가의 피상적인 인식수준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또 신씨의 작품을 여성적 글쓰기의 전범으로 치켜세우는 것에도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독특한 문체와는 달리 신씨의 소설은 가부장제하의 여성의 경험을 관습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소설 속에 나타나는 여성관 역시 단편적이고 소녀 취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씨의 주장. 그는 신씨의 소설을 여성적 글쓰기 운운하며 높이 평가하는 이면에는 여성 해방을 글쓰기를 통한 해방으로 호도하려는 무의식의 책략이 있는 것이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운찬기자>

[그림 3] 신경숙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와 비판을 담은 평론으로 소개한 『경향신문』 기사(1997.2.18.)

을 거예요. 그게 그야말로 여성문학, 페미니즘 문학이라고 할 만한 거지요. 애 키우다가 이혼하고 그런 과정에서 겪는 거를 아주 진솔하게 쓴 거거든요.

90년대라고 하는 것이 졸업정원제에 의해서 대거 대학에 들어갔던 여학생들이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취직을 하거나 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또 결혼해서 애 낳아서 키우면서 그 이전에 대학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에 마주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시기여서, 그때 그 사람들한테 소구(訴求)하는 작품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든지 양귀자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42] 같은 작품이었어요. 그러면서 여성 작가들이 대거 나오게 됐어요. 작가가 되는 게, 그래도 그 이전에 많이 읽어왔고 쓰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표현이 이상하지만, 진입 장벽이 살짝 낮았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기 독자를 가진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이 등장하고 그때 제가 평론을 몇 개 썼던 것 같아요.

42 양귀자,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살림, 1992.

저는 그때 공선옥 작가를 만났을 때 좀 충격이었어요. 공선옥 작가가 딱 보니까 강경애 작가하고 비슷한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했고.『피어라 수선화』[43] 작품집 중에 들어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뛰어났고, 저는 초기에 쓴『오지리에 두고 온 서른 살』[44]이라는 자전적인 작품도 매우 인상적으로 봤어요. 저는 그 시기에 나온 여러 작가들 중에서는 공선옥 작가가 제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고 좋아했습니다.

90년대라는 게, 그런 독자 대중들이 있고, 그 여성 작가들도 자기 삶이 그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89년 이후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우리나라에는 남아 있었지만. 그러니까 큰 얘기들을 선뜻 선뜻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방향이 맞나, 이런 회의들을 가지게 되니까. 아까 저는 분단이 여전했기 때문에 연구를 계속 할 수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현실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래야 되지 않을까 얘기하는 것이 망설여지는 시대가 되니까, 작가들도 멈칫 멈칫 잘 못 쓰고, 그런 거 많이 써왔던 남자 작가들은 좀 더 그랬을 것 같고. 근데 여성 작가들이 자기 이야기를 쓰면서 그게 굉장한 소구력(訴求力)을 가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도 나오고 이론도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된 거죠.

3.5 1990년대 중후반 여성문학 연구자가 이공계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친다는 것

질문 선생님께서 교수로 임용되셨을 때 그것은 어느 정도 일정한 사회적 성공을 거뒀다는 의미인 동시에 연구 업적에 대한 보증의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 교수님들께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80년대가 여성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적은 환경이었고 성차별이 결코 없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수 임용이 되시기까지 혹은 되시고 난 이후에도 어려움이 있으셨을

43 공선옥,『피어라 수선화』, 창작과비평사, 1994.
44 공선옥,『오지리에 두고 온 서른 살』, 삼신각, 1993.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런 불합리한 시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92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95년에 카이스트에 임용이 됐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좋았던 옛날 같아 보일 텐데, 1980년대 후반에는 서울대 국문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바로 바로 다 임용이 됐어요. 졸업정원제가 되면서 입학생 정원이 늘어나니까 교수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배들 중에는 석사학위만 가지고 교수로 임용된 사람들도 여럿 있어요. 근데 그러던 것이 이제 딱 막힌 거예요, 92년 제가 학위 받고 나올 때는 거의 막혀 띄엄띄엄 자리가 나오는데, 공개 강의나 면접을 위해서 오라고 해서 가서 보면 서로 아는 사람들 자주 만나기도 했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전국을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때 또 한 번 '여자라는 게 이렇게 큰 장애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나하고 같이 졸업했거나 나보다 늦게 졸업했는데,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연구 실적도 나보다 훨씬 적은 것 같은데, '단지 그대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빨리 임용되는 걸 제가 굉장히 여러 번 겪었어요. 어떤 분이 중간에서 이 사람 연구자로 괜찮다고 소개해서 제가 관련 교수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 교수가 "여자더라."라고 한 마디 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지금은 학위 후 3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때는 또 그랬지요. 그런 와중에 카이스트는 과가 없는 교양과정부이고, 또 카이스트가 제일 미국식 학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대학 시스템을 하나 도입하면, 좋은 거 나쁜 거 다 5년 후에 우리나라 다른 대학에 다 퍼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카이스트는 임용할 때 연구 업적에 대해 양적 심사를 했어요. 그때는 양적 심사가 가장 객관적인 거였어요. 그전에는 업적 심사라는 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카이스트에 임용이 됐지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카이스트도 인문사회과학부에만 여자 교수가 있는 거예요. 이공계에는 제가 갔을 때 딱 한 명 있었어요. 카이스트가 나름 굉장히 합리적이어서, 직장으로서의 카이스트에서 저는 여러 가지로 좋았고요.

질문 선생님께서는 1995년 한국과학기술원에 교수로 임용되셨습니다. 한국여성문학 연구자가 이공계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친다는 사실은 낯

설다는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로 부임 후,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느끼셨던 바나,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답변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남학생이고 여학생은 10% 될동 말동 그랬거든요. 그 학생들하고 작문도 하고 문학 수업을 하는데, 문학 수업을 할 때 그냥 내가 가르치고 싶은 거 자유롭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나하고 공부한 걸 가지고 어디 취직하거나 써먹을 게 아니잖아요. 자기 밥벌이는 전공 공부로 하는 거니까, 정말로 교양으로서의 문학을, 그야말로 쓸모없음으로써 가치를 가지는 그런 문학을 학생들하고 공부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즐거웠어요. 커리큘럼도 내 마음대로 짤 수 있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 시키면 학생들이 성실하게 꼬박꼬박 해오고, 잘 하기도 해서 좋았어요. 어떤 때는, 제가 나혜석의 수필 「모된 감상기」[45]를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추석 때 집에 가서 어머니하고 같이 읽고 어머니의 반응은 어떻고 너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써내라, 이런 과제를 내기도 했고요. 또 어떤 때는 '어머니의 자서전'을 너희가 대필해 오라는 과제도 냈어요. 그 친구 어머니들이 대학을 나온 경우도 있고, 안 나온 경우도 있고 한데, 아들이 엄마하고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학생들도 재미있어하고 저도 보람 있어 했던 기억도 나고, 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시 비평하고 쓴 것들 모아서 책으로 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공계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친다는 것은, 제일 큰 것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거. 얘들의 밥벌이하고 상관없이 그야말로 교양으로서의 문학 혹은 인생의 즐거움을 알아가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4 여성문학 연구의 넓이와 깊이

4.1 신여성들, 여성 작가들의 삶, 그리고 연구자 이상경의 삶

45 나혜석, 「모된 감상기」, 『동명』, 1923.1.1.-21.

질문 선생님께서는 여러 여성 작가들을 연구해 오셨는데 그 가운데서 2000년에 출판하신『인간으로 살고 싶다: 영원한 신여성 나혜석』[46]은 나혜석 및 신여성들의 삶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과 연구를 불러일으킨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 현재의 시점에서 식민지 시기 신여성들, 여성 작가들의 삶을 돌이켜 보셨을 때 선생님의 개인적인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작가를 꼽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워낙「경희」라는 작품을 보면서, 나혜석을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해서 제가 나혜석의「모된 감상기」라는 수필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제가 한국여성문학학회에서 내는 학술지,『여성문학연구』창간호에 자료 소개로 실었거든요.[47] 그게 준 충격, 저한테도 굉장히 컸고,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애 낳고 키우면서 겪은 그 온갖 마음속의 갈등이, 거기 다 있지 않겠어요? 내가 결혼까지는 생각했는데, 애 엄마 되는 생각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 애 엄마가 됐구나, 그러고 이제 낳아 놓았더니 애가 잠을 안 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자식은 엄마의 살점을 떼어먹는 악마"다. 그다음에 모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생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애를 기르면서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성의 신화'를 깨뜨린 부분. 이런 게 그야말로 내 삶하고 바로 맞아떨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애 한참 키우고, 너무 힘들 때는 애가 예쁘기는커녕 미울 때가 많잖아요? 잠잘 때만 예쁘다고... 그래서 비유적으로 '내가 계모인가? 나는 나쁜 엄마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이전에 이미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고,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도 차마 입 밖에 내서 말하지 못하는데, 나혜석은 그걸 입 밖에 내서 말하고,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나혜석 연구는 좀 쉽게 한 셈입니다. 나는 화가보다는 작가로서, 글 쓰는 이로서의 나혜석을 훨씬 높이 평가 때문에, 자료를 다 찾아서 내 식으로 읽

46 이상경,『인간으로 살고 싶다: 영원한 신여성 나혜석』, 한길사, 2000.

47 나혜석,「모(母)된 감상기(感想記)」,『여성문학연구』제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으면 다 잘 읽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전집도 내고 평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썼다고 할 수 있죠. 또 그 시기가 여성들이 대학도 많이 가고 대학원도 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자기의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아가게 되고 또 93년 이후로 여성 작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신여성에 대한 관심들도 굉장히 커졌어요. 저로서도 결혼·출산·육아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그냥 내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강경애나 그 뒤에 공부하게 되는 임순득은 그런 점에서 또 약간 다르지요.

강경애는 내가 연구자로 입문하고 줄곧 민중이라든지, 지식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혹은 또 이 분단 상황에서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의 모든 걸 생각하게 해 준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 삶하고 이렇게 겹치는 게 잘 안 느껴지잖아요. 강경애는 연구자로서의 나한테 굉장히 많은 지점에서 의미를 가지는데, 삶에서 겹치는 거는 조금 약한 것 같다. 그 시기의 민중문학이나 노동문학이나 여성문학의 큰 흐름 속에서,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뒤에 제가 임순득이라는 작가를 발견하고, 또 책까지 내게 되는데, 임순득이 너무 안 알려졌잖아요. 저도 있는 줄 몰랐으니까. 임순득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평가다. 페미니즘 비평을 한 사람.'[48]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여자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갔나?'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30년대 사회주의 여성 그룹 쪽들을, 좀 넓게 보게 된 셈이죠. 그래서 임순득은 읽으면, 젊은 시절? '결혼하기 전의 나', 이런 게 많이 겹쳐져요. 여학생으로서 책도 읽고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론의 지평도 상당히 넓고. 강경애나 나혜석은 그런 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임순득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임순득의 지성 같은 거에 공감하게 되는 측면이 많았어요.

지나고 나서 이렇게 놓고 보면, 나혜석은, 내가 살면서 직접 마주치는 성(性), 여성(女性), 섹슈얼리티(sexuality) 같은 것을, 강경애는 내가 그 시절에 가지게

48 "여성문학론을 본격적으로 펼친 것은 임순득이 처음이다. 임순득은 최초의 여성평론가로서 1930년대 후반의 '여류문학'논의 속에서 여성 문학이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여성문학에 대한 왜곡된 견해와 맞섰다. 우리 문단에서는 처음으로 '여성해방문학'에의 자의식을 가진 여성평론가였던 것이다." (이상경, 『임순득, 대안적 여성 주체를 향하여』, 소명출판, 2009, 123면.)

된 사회경제 구조에 대한 시각, 계급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가 하면 임순득은 그 모든 것들과 함께, 일제 식민지의 마지막 시기니까 '민족과 여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나한테 사유하게 해줬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2 '여성문학' 연구의 진전을 위한 여성 작가 전집/선집 및 영인본 발간, 그 위상과 평가

질문 선생님께서는 잘 알려진 대로, 여러 여성 작가들의 전집 및 선집(강경애,[49] 나혜석,[50] 임순득[51] 등)을 간행하신 바 있습니다. 특히 강경애와 나혜석은 식민지 시기를 대표하는 여성 작가로, 이후 두 작가의 연구 활성화에 선생님께서 편집하신 전집이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전집 및 선집 간행을 위한 작가를 선정하시는 기준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편찬하신 전집이 학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그거는 있어요. 예를 들면 나혜석 같은 경우, 제가 전집을 만들면서 활자화시키고 현대어로 상당히 많이 바꿨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경애·나혜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종류의 전집 작업, 그러니까 자료집 작업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현대어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혜석은, 제가 편집하면서 한자 필요한 거, 괄호 속에 넣고 다 이렇게 현대 활자로 바꿨는데, 그렇게 하니까 국문학 전공자 말고 나혜석은 특히, 여성학, 미술 뭐 그런 쪽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다른 전공 사람들도 같이 볼 수 있더라고요.

요즘 학생들이 한자 읽기가 힘들어서 식민지 시대 공부 안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도 했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일제시대 자료를 어떻게 보겠냐고요. 우리가 한문이 힘들어서 고전문학을 공부 안 한 것처럼. 그런데 일제시대에 사람들이 극

49 강경애, 이상경 편, 『강경애 전집』, 소명출판, 2002.
50 나혜석, 이상경 편, 『나혜석 전집』, 소명출판, 2000.
51 이상경, 『임순득, 대안적 여성 주체를 향하여』, 소명출판, 2009.



여성작가 姜敬愛를 아십니까

30년대에 강한 사회의식 발산

소설-평론 등 집대성 全集 나와

식민지 시대 여성 작가 중에서 리얼리즘 소설의 세계를 밀고 나간 강경애(姜敬愛)의 작품들을 처음으로 집대성한 '강경애전집'(이상경엮음·소명출판)이 나왔다. 강경애(1906~1944)는 30년대 한국 문학사에서 강렬한 사회 의식에 기반을 둔 여성 소설의 세계를 개척한 작가로, 요즘 젊은 국문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재조명되고 있다.

강경애는 지난 24년 시를 발표하면서 창작활동을 전개했으나 39세의 짧은 나이로 삶을 마감했다. 그는 장편 '인간문제' '어머니와 딸'을 비롯 17편의 중·단편과 평론, 수필, 시를 남겼다. 하지만 그는 생전에 자기 이름을 내건 책 한권 내지 못했다.

전근대적 가부장제에 희생당하는 여성의 삶, 일제와 지주의 횡포, 노동 문제 등을 정면으로 다룬 그의 소설은 늘 검열을 받았고, 출판도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70년대 이후 그의 대표작 '인간문제'가 단행본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흩어진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경애의 자화상 스케치.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 어린 나이에 의붓 아버지 밑에서 눈칫밥을 먹고 자란 강경애는 제도적 억압에 대해 늘 저항적이었다. 평양 숭의여학교 시절 그는 엄격한 기숙사규칙에 항의하는 동맹휴학을 주도했다가 퇴학당했다. 그는 당시 동경 유학생 출신 양주동과 짧은 연애에 빠졌다가 헤어진 뒤 만주로 이주했다. 간도에 이주한 조선인의 참혹한 삶과 함일 무장투쟁을 묘사한 중편 '소금', 지식인의 사상 운동을 그린 단편 '파금' 등 급기를 넘어서는 작품들을 잇따라 써냈다.

이 전집을 엮은 이상경교수(한국과학기술원)는 "강경애는 30년대 남성중심 문단에서 소위 여성다움과는 거리가 먼 사회의식이 강한 작품을 썼기 때문에 당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며 "해방 후에는 남북분단의 냉전의식때문에 남한에서는 오랫동안 잊혀진 작가였다"고 지적했다.

/朴海鉉기자

[그림 4] 『강경애 전집』 발간을 소개한 『조선일보』 기사(1999.5.10.)

한 상황일 때, 또 지성이 아주 높이 올라가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힘 같은 것이 높아지는데. 그런 것들이 읽히지 못해서 외면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가슴 아프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자료 작업할 수 있는 건 하겠다.' 물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혹은 '꼭 해야 되고 이건 알리고 싶어.' 이런 것만 하겠다는 것이고. 할 때는 가능하면 현재의 대학교 1학년 정도가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국문과는 원전주의? 원본주의가 강해서 그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늘 얘기해요. 옛날에는 정말 보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워낙 인쇄술, 복사 기술이 좋아져서 전공하는 사람은 이렇게 후루룩 보고 필요한 원문은 영인본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있는 그대로 활자로 옮길 일이 뭐가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한테 알리고 널리 읽히게 되는 것은 굉장히 보람이 있죠. 『강경애 전집』 같은 경우는, 『인간문제』의 경우 북한에서 나온 초판본, 단행본 초판본을 실었거든요. 그때는 『동아일보』본은 이미 활자화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이제 이 자료도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었으면 하고 해서 실었는데, 실제로 독자가 만날 때는 발표 당시의 것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새로 작업하면서 동아일보 본으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강경애'를 통해 북한의 문학 연구자들과 교류하시면서 인상 깊은 점이 있으셨을까요?

답변 2003년에, 남북한이 같이 강경애 연구를 하면 어떨까 해서 그런 걸 한 번 조직을 했어요. 그때 베이징 중앙민족대학의 오상순 교수님, 김춘선 교수님 같은 분이 중간에서 회의를 조직하셨어요. 북한 학자들을 불러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거의 성사되지 않는데, 아무튼 그때는 2003년이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어서 한참 분위기가 좋을 때였어요. 이제 한 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는 심지어 학술진흥재단에 '남북 학술 교류 지원사업' 프로젝트를 신청했고 그것이 선정돼서, 강경애를 주제로 베이징에서 학술회의를 했어요. 학술대회명은 '여성 문학을 통한 남북문학연구의 소통: 강경애 문학 연구 국제학술회의'였어요. 강경애는 북한 학자가 참여할 수 있는 주제였던 거죠. 여기서 나도 발표하고, 중국에서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와서 발표했습니다.

그때 저는 은종섭 교수님을 뵙고 싶다고 했어요. 은종섭이라는 분이 김일성종합대학 문학 대학의 학장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쓰신 『조선근대 및 해방전 현대소설사연구 1, 2』[52]라는 책을 제가 뒤늦게 봤습니다. 물론 복사본이었지요. 그걸 보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봤던 문학사, 그러니까 『북한의 우리문학사 인식』을 쓰던 90년대에 볼 수 있었던, 북한에서 나온 문학사는 반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마주 선 반쪽이었는데 이분의 소설사에는 내가 『한국근대민족문학사』에서 다루었던 작가와 작품이 거의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남쪽에서 월북 작가·작품 지워진 것들을 다 복원하려고 한 것처럼, 북한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걸 봤으니까 너무 반갑고 놀라웠어요. '은종섭'에 대해 물어보니까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오시면 좋겠다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그분이 오셨어요. 회의 형식은 좀 복잡해서 한 자리에 마주 앉아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분도 베이징에서 회의를 한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올 거라고 하면서 제 이름을 들으셨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이기영에 관해서 쓴 박사 논문을 단행본으로 만든 것,(『이기영-시대와 문학』[53])이 북한에 들어갔나 봐요. 그분이 그걸 읽고

52 은종섭, 『조선근대 및 해방전 현대소설사연구 1, 2』,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53 이상경, 『이기영-시대와 문학』, 풀빛, 1994.



□ 인터뷰 / '이기영-시대와 문학' 펴낸 소장 국문학자 **이상경씨**

이기영 문학적 공과 통해 카프·북한문학 파악 시도

"작가론은 작가와 시대 관련성 포착 중요"…한설야 연구도 도전해볼터

최재봉 기자

"이기영은 일제시대의 카프문학과 해방 후의 북한문학이라는 우리 근대문학사의 중요한 두 흐름의 한복판에 있었던 작가입니다. 그의 문학적 공과를 통해서 카프와 북한문학의 공과를 한꺼번에 따져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를 연구 대상으로 택했습니다."

소장 국문학자 이상경(34)씨가 〈고향〉과 〈두만강〉의 작가 이기영(1895~1984)의 생애와 문학을 총괄한 연구서 〈이기영-시대와 문학〉(풀빛)을 펴냈다. 92년 여름 저자의 서울대 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이기영 소설의 변모 과정 연구〉를 저본으로 삼았지만, 전기적 사실과 해방 후 북한문학의 전개과정과 관련한 부분 등을 크게 보완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나온 작가론으로는 〈이광수와 그의 시대〉를 비롯해 염상섭론, 임화론 등을 정력적으로 발표한 김윤식 교수의 작업이 거의 유일했었다. 더구나 월북작가인 이기영의 경우에는 88년 해금되기 전까지는 아예 언급되는 것조차 금기시돼 오다가 해금 이후 몇년 사이에 작품 및 작가 연구 결과가 쏟아져 나왔지만, 그것이 하나의 단행본으로 묶여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작가론을 시도할 경우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이 한 작가를 밀고 나간 시대·역사적 동력을 파악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작가가 자신의 시대와 맺은 관련을 포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 논문과 그것을 보완한 이번 책이 앞서의 이기영 연구에 대해 지니는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리얼리즘과 역사주의라는 커다란 틀을 통해 이기영의 문학을 보려고 애썼습니다."

루카치의 리얼리즘과 역사소설론의 관점에 많은 부분 기대고 있는 이 책에서 이색는 종종 '전망'이라는 뜻으로 잘못 쓰이기도 하는 '시각'(퍼스펙티브) 개념을 엄밀히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그에 따르면 '전망'이 '바람직한 미래의 상'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루카치가 본래 사용한 '시각'은 '올바른 취사선택에 의한 완근법적 현실 이해와 그에 의한 미래의 방향 예측'에 가깝다. 이런 개념 구분이 필요한 것은 이기영 자신이 후기로 가면서 이 두 개념을 혼동하는 바람에 존재하는 현실과 바람직한 미래를 뛰어는 우를 범했기 때문이다.

저자에 따르면 이기영은 그 자신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카프문학의 시행착오를 거쳐 〈고향〉(1933)에서는 "식민지 자본주의의 비판과 극복이라는 시각이 확고하게 현실의 제 형상을 선택하는 원리로 작용하면서 그 현실을 총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활동 공간을 북한으로 옮기면서 그는 루카치가 그토록 경계해 마지않았던 도식주의 및 실용주의적 작품을 노출하고 만다. 그것은 "주체적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전사회적 명제를 문학에도 강요하려는 북한 당국의 정책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그 체제에 눈멀어 핵심문제를 우물쭈물 넘어가려 한 이기영 개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다"는 것이 이씨의 입장이다.

그는 이기영에 이어 자신의 석사학위논문 주제였던 강경애 연구를 역시 단행본으로 낼 계획이며, 이어서 한설야와 나혜석 연구서에도 도전해볼 생각이다. 자신해 및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펴낸 〈한국근대민족문학사〉의 현대편 작업도 속행시킬 것이라는 그는 또 최근 송기숙씨의 대하소설 〈녹두장군〉과 월북작가 박태원의 〈갑오농민전쟁〉을 비교한 글문으로 관심을 모은 데 이어 여성 작가 공선옥씨의 첫 작품집 해설도 맡는 등 현장비평에도 욕심을 내고 있다.

[그림 5] 『이기영-시대와 문학』을 소개한 『한겨레』 기사(1994.11.2.)

오신 거예요. 원래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도 연구 많이 하잖아요. 『조선문학』 잡지 같은 거 보면 남한문학에 대한 비평이나 소개가 꼭 한 꼭지씩 있지요. 이렇게 반동으로 썼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훌륭한 게 나왔다 하기도 하고.

제가 올 거라고 하니까 제 책을 찾아보셨겠죠? 제가 『조선근대 및 해방전 현대소설사연구 1, 2』를 보고 너무 보고 싶었던 그분을 이렇게 딱 만났는데, 인상적인 게, 이분의 첫 말씀이 "여자였네요."였어요. 제 이름이 이상경(李相瓊)이잖아요. '상(相)' 자(字)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은종섭 선생님, 북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처음이기도 하고, 연구자로서 북한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실물로서 만나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북한에서는 박사 논문 쓸 때는 강의를 일체 다 면제해 준대요. 그래서 김일성 종합대학 도서관하고 인민대 학습당, 거기에 앉아서 자료를 보셨다고 해요. 그러느라 허리병을 얻었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북한도 주체사상 내세우면서 작가들 숙청되고, 그 작품들 다 없애고 개작하고 삭제하고 해서, 문학 전집 속에서 (초출과) 달라진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도 남아 있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종섭 선생님은 잡지들, 신문들 일일이 다 대조하면서 읽고, 그렇게 해서 삭제나 개작되지 않은 판본으로 읽고, 평가도 새로 하고 새로운

작품과 작가도 찾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에 대한 평가, 작가에 대한 평가 같은 것도 상당히 비슷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2003년에. 그렇게 '강경애 연구'를 인연으로 해서 만났던 거. 그리고 그때 「소금」[54]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발표였어요. 그 만남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남한에서는 김윤식 교수, 북한에서는 은종섭 교수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그 평가는 여전하고. 이제 그분은 은퇴하셨을 거고 어떻게 지내시는지는 모르죠.

또 오향숙 교수라고, 일본의 조선대학교 교수예요. 일본의 조선대학교니까 '조총련(朝總聯)' 쪽이죠. 일본은 되게 어려워요. 재일(在日) 유학생 간첩단 사건 이런 것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 쪽 사람하고 만나면 이 사람이 '민단(民團)'인가 '조총련'인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고 '조총련' 쪽 사람 어쩌다 만나서 잘못 걸리면 간첩으로 몰리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요.

아무튼 오향숙 선생님도 강경애를 연구하시면서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학위했으니까, 북한에 가서 강경애 무덤을 찾아서 답사하신 거예요. 저는 장연은 갈 수 없으니까, 용정에 '여성 작가 강경애 문학비'를 세웠거든요. 연변에서 할 때 처음에는 '여류 작가 강경애 문학비'를 세운다고 그래서, "'여류' 아니다. '여성'으로 해라."라고 해서 명칭을 바꾸기도 했어요.[55] 근데 오향숙 선생님은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장연에 있는 강경애 무덤을 찾았어요. 이분이 찾아가서 사진도 찍고, 답사기를 발표도 했는데 그것을 저한테도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정말 감동적이었죠.

---

54 강경애, 「소곰」, 『신가정』, 1934.5-10.

55 1999년 8월 8일 용정의 용두레 비암산에서 강경애 문학비 제막식이 열렸다. 이상경 선생님께서는 강경애 문학비 건립에 앞장서셨다. 문학비 앞면에는 '녀성작가 강경애 문학비'라는 이름과 "인간사회에는 늘 새로운 문제가 생기며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투쟁함으로써 발전될 것입니다."라는 강경애의 작품 구절이 새겨졌다. 그리고 뒷면에는 강경애의 이력, 문학세계, 문학비 건립 취지가 '룡정시문학예술련합회, 중국조선문학연구회' 명의로 들어갔다. 이상경 선생님에 의하면 소설가 이경자, 공지영, 공선옥 등 후배 여성 문인들이 건립 비용을 보탰다. 「한국여성문학 선구자 강경애를 기린다」, 『한겨레』, 1999.8.3.



[그림 6] (왼쪽) 강경애 묘비(1949년 7월 건립, 황해도 장연군 불타산 기슭, 이기영·박팔양·이찬·박중선·임순득·김춘희 기증) (오른쪽) 강경애 문학비(1999년 8월 8일 건립, 중국 용정시, 박완서, 이상경, 리선희, 김병민 등 협찬)



[그림 7] 김윤식 선생님과 함께 강경애 문학비 앞에서(2004.7.17.)

아,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교수님 통해서 사진과 신문기사를 보내주셨구나. 그 무덤 비석에 「산딸기」라고 하는 유고시가 새겨져 있는 것과, 그 비석을 세운 사람 중에 이기영도 있고 임순득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셨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49년에 『인간 문제』를 단행본으로 내면서,[56] 『문학예술』에 임순득이 평론을 썼고,[57] 그 다음에 비석도 세웠나 봐요. 무덤에 비석도 없이 있던 걸. 그게 49년인가 봐요.

오향숙 선생님이 제가 낸 『강경애 전집』을 당연히 보셨겠죠? 보셨고 그래서 이분이 2006년에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책으로 내고,[58] 또 하나 『강경애 작품집』이라고 전집을 내셨어요.[59] 그래서 그 전집을 보면 제가 전집에 넣은 작품을 그대로 전재(轉載)하거나 이것에 근거해서 편집한 것들이 꽤 있어요. 북한에서도 강경애는 『인간 문제』만 맨날 얘기하고 그러다가 70년대 언젠가 「소

56 강경애, 『인간 문제』, 로동신문사, 1949.
57 임순득, 「『인간문제』를 읽고-간단한 약력 소개를 겸하여」, 『문학예술』, 1949.8.
58 오향숙, 『강경애 창작 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6.
59 강경애, 오향숙 편, 『강경애 작품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6.

금」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소금」에, 항일 무장 투쟁하던 사람들 얘기가 있어서, 굉장히 높이 평가했는데, 그걸 더 깊이 들어가서 연구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오향숙 선생님이 그걸 한 셈이죠. 그러면서 북한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는 찾지만, 잡지가 없는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전집에 실었던 자료들을 그대로 실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장산곶」이라고 강경애가 일본어로 발표한 게 있거든요.[60] 근데 그걸 찾아서 제가 한국에서 번역해서 소개했는데, 오향숙 선생님이 저를 인용하면서, 그 자료를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박사 논문에 제가 인용되어 있거든요. 저도 오향숙 선생이 「산딸기」라는 유고시를 발견했다고, 인용하고 소개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교류한 것도 매우 감동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북한 분위기가 좋을 때는 고고학이나, 어학 하는 분들이 교류하잖아요. 근데 이 근대·현대 쪽은 서로 입장이 너무 달라서 거의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직접은 아니지만, 남한하고 북한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달까. 연구 자료를 주고 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 또 강경애 연구를 한 큰 보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4.3 북한여성문학 연구의 동력

질문 선생님의 연구에서 큰 줄기를 차지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북한의 여성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980년대부터 "온전한 한국문학사"[61] 쓰기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도, 남한에서 '월·납북 문인'이라는 용어 아래 이데올로기의 범주 내에서 북한문학을 연구하는 일을 경계해 오셨습니다. 이를 감안했을 때 근래 출간된 『혁명 속의 여성, 여성 속의 혁명: 북한의 여성문학』[62]은 그 자체로, 선생님께서 일

60 姜敬愛, 「長山串」, 『大阪每日申報』, 1936.6.6.-10.; 姜敬愛, 「長山串」, 『文學案內』, 1937.2에 재수록.; 강경애, 김석희 역, 「장산곶」, 『한국문학』, 1989.12.; 강경애, 「장산곶」, 이상경 편, 『강경애 전집』, 소명출판, 2002.

61 이상경, 「온전한 한국문학사를 위하여」, 『실천문학』 1988년 봄호, 346면.

62 김재용·이상경, 『혁명 속의 여성, 여성 속의 혁명: 북한의 여성문학』, 소명출판, 2022.

찍이 촉구하신 "남·북한 어느 쪽의 문학사에도 편입되지 못한 문학 활동"[63]의 성과를 고난의 행군(1992) 이후에 이르기까지 오래도록 조명해 온 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해방 직후 '남녀평등권법령'(1946)이 제정된 이래 공식적으로 북한에는 '여성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온 상황과 소설 쓰기의 관계, 다시 말해 법과 여성, 그리고 문학의 관계를 북한의 문학에서 찾아 논의하고 계시다는 점이 무척이나 흥미로웠습니다. '제도적 해방'의 아이러니를 짚어내고 있으시다는 점에서요. 그렇다면 1980년대에서 출발하여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선생님을 '북한의 여성문학연구'로 이끌고 있는 '동력'은 무엇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답변 북한문학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일제시대 때 프로문학을 공부한 그 연장선상에서 내가 공부했던 그 작가들이 그 뒤로 뭘 했나 하고 보려니까, 다 북한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강경애는 해방 전에 일찍 죽었지만 북한에서 일찌감치 단행본이 나왔고, 이기영은 당연히 북한에 가서도 작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는 『두만강』[64]까지만, 한 52년까지 정도만 썼는데, 그 뒤에도 작품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프로문학 운동을 했던 작가들이 북한에 가서 뭘 했나를 보면서 북한문학을 보게 된 것이고요.

임순득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잘 몰랐어요. 일제 시대 때 자료도 찾는 데 엄청 어려웠는데 해방 후에 어디에 가서 뭐 하고 있나 이리저리 봤더니 『조선문학』에 작품도 싣고, '『인간문제』론'도 쓰고 『조선여성』도 편집하고 그랬더라고요. 북한에서 『조선문학』이 나오면서 여자 작가로는 처음으로 거기 작품을 실었습니다. 그게 「솔밭집」[65]이었나. 해방된 북한에서 여성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것도 임순득스러운 게 있고, 「딸과 어머니와」[66](1949)라는 작

63 이상경, 「온전한 한국문학사를 위하여」, 340면.
64 이기영, 『두만강』, 풀빛, 1989.
65 임순득, 「솔밭집」, 『조선문학』, 1947.12.
66 임순득, 「딸과 어머니와」, 『문학예술』, 1949.12.

품, 그거는 해방됐다 그러는데 어머니가 아들 보고 빨리 장가가라 그러고, 딸은 시집갔다가 남편이 죽었는데, 아들이 한 번 결혼했던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자기 누나의 친구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내 아들을 헌 여자한테 어찌 주냐고 펄쩍 뛰고, 딸이 그러면 나도 헌 여잔라고 해서, 어머니가 깨우치는 그런 소설인데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런 임순득을 따라가면서 다른 북한의 작품들을 보게 되고 여성 작가들은 어떻게 됐나를 좀 더 보게 된 것이지요.

그다음에 북한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다 검열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천편일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런데 간혹 거기서 삐져나오는 작품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딴소리하는 어떤 부분들이 소설에 있어서, 그걸 따라서 가면 북한 작가가 뭘 고민하고 있고, 당시 북한 사회에서는 뭐가 문제였고, 이 사람은 뭘 생각하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도 필화 사건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작품들을 읽으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여성 작가 작품은 제가 아는 한에서는 필화 사건을 겪거나 그런 건 없는데, 여자이기 때문에 좀 더 예민하게 느끼는 삶의 문제 같은 것들이, 그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오는 측면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북한도 2000년 이후로는 여자들이 작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기 『조선문학』을 보면, 여자 작가들이 잔뜩 등장했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평론도 있어요. 사실 '고난의 행군' 시대를 겪으면서 여자들이 북한 사회의 가부장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소설로 나오고 해서 그걸 보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틀로 『혁명 속의 여성, 여성 속의 혁명』을 쓴 것입니다. 특히 '고난의 행군' 겪으면서 여성 작가 소설에서 '이중의 짐'이란 말도 나와요. 그 전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고생했으니까. 식량 구하러 다니는 것도 주로 여자들이 했다네요. 남자들은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여자들은 좀 덜 나가도 되고, 그 장마당도 다 여자들, 원래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하면서 '내가 이 많은 짐을 지고 있구나.' 하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그게 소설에 드러나면서 북한도 이제 여성 작가들이 훨씬 많아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소설 속에서 이렇게 '여성으로서의 목소리' 같은 걸 내기 시작하는 걸 흥미롭게 봤습니다.

4.4 식민적·성차별적인 환경에서 성장해 온, 식민지 조선의 '여성문학'에 대한 평가

질문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식민지 조선의 여성 작가 및 평론가들의 문학을 연구하시면서, '민족'과 '여성' 문제의 교차를 강조해 오셨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연구해 오신 식민지 조선의 '여성문학'의 가치를 어떻게 정의하시고 계신지요?

답변 민족하고 여성이 교차하는 지점의 문제, 이게 이제 90년대 이후에 포스트페미니즘이라든지 탈식민주의 이런 쪽 이론들이 들어오면서, 특히 서구 쪽에서는 민족 같은 거대 담론으로, 민족의 구성원이라는 것으로 여성을 억압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런 요소가 당연히 있기도 하고요. 여성하고 민족은 서로 원심력으로 작동한다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운동은 인도라든지 혹은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여성에게 전통적인 여성의 모습을 강요하고, 이를 통해 민족적 가치를 보존한다는 명목 하에 여성을 억압한 다양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라는 정체성과 배치될 수밖에 없다, 이런 논의가 굉장히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90년대 말, 2000년대에.

근데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전개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론에 현실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이 늘 있었어요. 우리가 여전히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북한 끌어들여서 계엄하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분단이라는 게 전혀 넘어서지 못한 문제이고, 지금은 이제 각자 딴살림으로 살자고 했지만, 어쨌건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만나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라면 우리한테 민족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배치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작가나 작품을 봤을 때, 일제시대 같으면 일본에 대한, 식민지에 대한 자세라든지, 친일문학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민족 문제에 절실한 사람이 여성으로서의 자기 존재 문제에 대해서도 절실하고, 어떤 해방의 의지가 강렬하더라, 그런 것들을 좀 더 힘주어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논문을 썼던 거죠.

그게 저는 임순득 연구로 확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순득이 일제 말에, 여성적인 어떤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는데, 친일적인 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임순득·지하련·최정희 셋을 같이 놓고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제 최정희는 굉장히 여성스럽더니 그 여성스러움이라는 것이 좀 더 강한 어떤 존재에 대한 의존성 같은 게 아니었나. 작품에서 그런 부분이 좀 드러나고, 실제 삶에서도 최정희는 김동환과 같이 있으면서 친일문학을 많이 쓴 것 같기도 하고요. 지하련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임순득은 약간 시끄러운 스타일이라면, 지하련은 되게 조용한데, 고집이 있어 가지고 꼭 할 말만 하고 해서 안 되는 말은 안 하고, 그 시기에 여성으로서 강요된 어떤 거에 대해서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3명을 보면서 여성하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배치될 수 없고, 오히려 어떤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 이쪽 부분도 잘 안 되고 그런 입장이 저의 기본 입장이었어요.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문학의 현실」을 할 때도. 여성에 대해서 신통하지 않은 부분이 나오는 걸 보니까 수상하다고 이 작품 전체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많더라, 그런 입장이 기본적으로 있었거든요. 식민지 시대 일제 말 작품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4.5 한국에서 한국문학을 연구한다는 것

질문 선생님의 연구에서 2000년대 후반 이후 눈에 띄는 변화라면 해외 학자들과의 활발한 교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200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의 '조선학회'나 '일본식민지문화연구회' 등 일본 내 식민지 조선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학회들의 학술지에 글을 투고하시기도 하고,[67] 미국의 학자들과 함께 한국의 식민지 시기 혹은 독재 시기 문학을 영문으로 번역한 선집을 편집하시기도 하셨습니다.[68] 또

67 李相瓊, 「植民主義と女性文學の二つの道: 崔貞熙と池河連」, 『朝鮮學報』 202, 朝鮮學會, 2007.; 李相瓊, 「一九三一年の「排華事件」と韓國文學」, 『植民地文化研究』, 植民地文化研究學會, 2010.

68 Theodore Hughes·Jae-Yong Kim·Jin-kyung Lee·Sang-Kyung Lee, *Rat Fire: Korean*

한 영문으로 번역된 강경애 단편집에 해설을 쓰시기도 하시고,[69] 최근까지 대만, 일본 등에서 활동하는 저자들과 함께 활발하게 공저를 출판하고 계십니다.[70] 해외 한국학자들과 교류하시면서 알게 되신 각 지역 한국학의 특징이나 인상 깊으셨던 점이 있으셨을까요?

답변 만나게 된 계기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일본의 학술지에 글을 싣게 된 것은 오무라 마스오 교수님과의 관계가 컸지요. 오무라 교수님이 주도하시던 '식민주의와 문학 국제학술회의'를 몇 차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주최하면서 만주국문학, 중국문학, 대만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한국근대문학을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다른 지역의 문학과 함께 볼 수 있는 시야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강경애의『인간문제』와 이기영의『고향』을 오무라 선생님이 일본어로 번역하실 때 제가 약간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또 가르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료에 밝고 사실에 엄격하신 분인데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 저에게 필요하겠다 싶은 것은 선뜻 챙겨 주셨어요.



[그림 8]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제9회 식민주의와 문학 국제학술회의를 마치고 오무라 교수님 부부와 함께 (2013.11.1.)

Short Stories from the Japanese Empire, Cornell University Press, 2013.; Ruth Barraclough·Jae-Yong Kim·Jin-kyung Lee·Sang-Kyung Lee, *Island Ablaze and Other Stories: The Us Empire in North and South Korean Literatures*, Cornell University Press, 2025 등.

69 Anton Hur· Sang-Kyung Lee, *(The) underground village: short stories by Kang Kyeong-ae*, Honford Star, 2018.

70 손지연 편,『전후 동아시아 여성서사는 어떻게 만날까』, 소명출판, 2022.; 김재용 편,『동아시아 식민지문학 비교연구: 중일전쟁 이후를 중심으로』, 소명출판, 2021 등.

중국 쪽 학자들하고는 강경애 연구가 매개가 되었습니다. 주로 우리 조선족 학자들과 교류했는데, 중국 학자분들이 북한 학자들과의 다리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라든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 측 학자 중에서 김경선 교수가 생각납니다. 북경외국어대학 교수인데, 그분은 중국하고 국교가 수립된 뒤, 상당히 일찍 한국에 유학 와서 부산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이전 분들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학위를 받았지요. 김경선 교수가 박사 논문을 이기영 연구로 쓰는 와중에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는 중국에 있는 한국문학 연구자들하고 만나면서, 우리한테 막혀 있었던 식민지 시대 프로문학이라든지 그 작가들의 북한에서의 행적이라든지 작품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쪽에서는 그런 거에 너무 지쳐서, 한국의 90년대 참신한 여성 문학이라든지, 포스트-의 흐름에 대해서 훨씬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로 살짝 어긋나는 느낌을 받으면서 웃은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일부이고 그분들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커리큘럼 속에 식민지 시대의 문학 같은 게 다 들어있으니까, 그런 걸로 서로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북한의 은종섭 교수님을 초빙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국 쪽 학자들과의 교류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서로 즐거웠던 기억이죠.

미국 쪽은 제가 2000년에 미국 UCI에 연구 연가를 갔을 때 프로문학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Ted Hughes와 Jin-Kyung Lee 선생이 연락을 해 와서 만났던 인연이 *Rat Fire* 공동 편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는 '한국 프롤레타리아 문학 선집',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 프롤레타리아 문학 선집'의 성격을 띠었고 거기에 번역자로 참가했던 연구자들과도 이런 저런 관계를 맺게 되었지요. 그다음, 2007년에 시카고 대학 최경희 교수가 주도했던 '북미 한국 문학 워크숍'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최경희 교수도 문우회였네요.) 그때는 대부분이 대학원생이었는데 지금은 다들 대학에서 부교수나, 테뉴어 교수가 되었네요. 미국 쪽에서는 한국문학을 공부할 때 최소한 동아시아, 넓게는 세계문학 속에서 사유해야 한다는 당위가 있고 연구대상도 문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문화연구 전반을 넘나들어서 한국 안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과 이론을 접하면서 자극을 받았습니다. 또 그쪽은 경향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론 중심으로 가는 게. 근데 또 생각하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무슨 잘 안 보이는 1차 자료 찾

고 해독하다시피 들여다보고 하는 것은 우리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론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작품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들 하는데, 또 그런 걸 보면 시야가 넓어서 상당히 신선해요.

5 그동안의 연구와 삶을 반추하며, 그리고 '한국현대문학자들'에게

5.1 연구자 이상경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연구 계획

질문 선생님께서는 2025년 2월에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퇴임식을 진행하셨습니다. 교수로서의 삶은 마무리하셨지만, 연구자 이상경의 삶은 새로운 시작의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자로서 선생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나아가 앞으로의 연구 계획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연구자로서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문학 연구라든지, 문학사 서술이라든지, 여성 작가 연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떤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우연한 만남에 의해서 하게 됐는데, 그것이 굉장히 시의적절했던 측면이 있었어요.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예를 들면 강경애 작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출발은 우연히 만나서 그 시대 속에서 이거를 해야겠다고 해서 했는데, 80년대에는 프로문학의 대표자로서 의미가 있었다가, 90년대에는 또 여성 문학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는 작가로 여전히 논의되고 그래서 나도 그걸 따라가면서 또 뭔가를 할 수 있었지요.

또 해금되고 한쪽으로는 거대 서사가 다 의미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다른 쪽으로는 북한 자료도 많이 볼 수 있게 되고, 북한 학자를 만나기도 하면서, 그 이전에 갈망을 가졌던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연구할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이 여전히 의미가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있어서, 연구자로서 내가 이걸 왜 하는가 생각하면 그 이유가 언제나 매우 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운 좋게 연구자로서 지나올 수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도 있었을 텐데, 저의 전 세대 분들은 자료도 훨씬 더 보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어쩌면 좋은 세상도 못 봤을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공부들을 하면서 학문의 동반자이자 인생의 동반자가 된 남편을 만났고, 아이가 안 아프고 잘 커 줘서 내가 논문 쓰다가 입원실에 뛰어가는 일이 없었던 것, 그것도 역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연구를 시작할 만큼 제가 그렇게 막 넘치지는 않아요. 제가 원래 좀 안 넘치게 산 사람이어서, 그래서 그냥 지금 하려고 해놓고 마무리 못한 거, 『강경애 전집』 개정판 내는 거, 그거 하고, 그다음에 『강경애 평전』 초고가 완성돼서 출판사에 가 있는데 마저 작업하고, 그다음에 범박하게 하면 '여성문학사'-그때 김윤식 선생님 강좌에서 했던 거[71]를 다시 책으로 만드는 건데, 좀 정돈해 가지고 '여성문학사'의 틀을 갖추려고 하는 거, 그 정도까지를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넘치게 하면 나혜석·강경애·임순득을 축으로 해서 식민지 시대 문학사를 새로 쓰는 것, '젠더로 읽는 한국문학사', 이런 식으로. "문학사라고 하는 걸 써야 되느냐?"하고 회의적인 시선들이 있기도 한데, 저는 어떤 출발점으로서 기준이 되기 위해서 문학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90년대에는, '정전의 해체'라는 것도 엄청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90년대에 '정전 해체라니, 우리는 아직 정전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출발점이 될 만한 '여성문학사' 같은 거, 거기까지가 저의 계획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소소하게 그냥 '오늘이 내 인생에서 제일 젊은 날이니까, 하고 싶은 걸 그때 그때 하고 살자.' 이런 정도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5.2 연구자 이상경이 함께였던 순간들, 그리고 '한국현대문학자들'에게

질문 한국현대문학자대회는 여러 학교 연구자들이 모여 서로의 연구뿐만 아니라 삶을 공유하는 1년 중 가장 큰 행사입니다. 이번 인터뷰도 한국

71 이상경,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제2회 김윤식 강좌 〈다시 읽는 근대 여성 작가〉, https://www.youtube.com/watch?v=TvBcrpeJeGY&list=PLy6E46KKVVRe0VqlebL2CQnNegTL1dr5e, 등록일: 2024.2.20. (검색일: 2026.3.30.)

현대문학자대회에서 기획되었는데요.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 공부하는 일'을 해오셨던 선배 연구자 이상경 선생님께 청해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함께 공부하면서 즐거웠던 모임의 특징 또는 분위기, 기억에 남는 사람,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 일화가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나아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함께 모여 공부한다는 것, 지금 이 순간을 공유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 연구자들이 모여 같이 공부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한국현대문학자대회는 어떤 장소가 되면 좋을지 '한국현대문학자들'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같이 공부하는 것. 70년대, 특히 80년대에는 '공동체' 그러면 약간 더 우아하고, '집단' 그러면 약간 폭압적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류의 함께 해야 한다는 거, 같이 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해야 된다는, 굉장히 강한 시대적 요구? 당위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리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지요. 그래서 공부도, '공동으로' 한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뒀고요. 혼자서는 못하지만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게, 큰 거였으니까, 계속 여러 가지 공동 작업을 하고, 공동연구를 하려고 스터디, 세미나, 그때 세미나라고 그랬는데, 온갖 종류의 세미나를 했고요. 거기서 공부 좀 하고, 또 밥 먹고 술 마시고 수다 떨면서 지내는 것 그게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죠. 사실 세미나라는 게 가성비는 좀 낮잖아요. 그때는 더 더군다나 왔다 갔다 하고, 가서 공부 조금 하고, 또 쓸데없이 수다 떨고. 뭐 이런 걸 생각하면, 공부 자체만 놓고 보면 가성비가 굉장히 낮은데, 지금 생각하면 그러면서 같이 호흡했던 시대의 분위기, 함께 꾸었던 꿈 같은 게 그 이후로 살아나가고 공부하고 할 때 나한테 어떤 준거 틀 같은 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서울로 와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는 별로 연계가 없어요. 방학 때 잠깐 가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방학 때도 맨날 세미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해서 집에 갈 시간도 없었지요. 그런데 대학교 '문우회' 때 만났던 친구들하고는 지금도 만나거든요.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지반이 형성돼 있는 상태니까, 지금은 만나서 공부하지는 않고 그냥 노는데, 그래도 무슨 얘기를 해도 서로 거

리낌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게 다 그때 공부하면서 쌓은 우정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문학자대회는 나뉘어서 하다가 다시 그걸 새로 함께 하는 노력이어서 정말 대견해요. 학회 하나를 꾸리는 것도 큰일인데, 이거는 몇 개 학회가 같이 나가는 거니까 굉장한 일입니다. 이런 기획,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사실 우리 연구자들의 역사를 정리하고, 혹은 전통을 세우고 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것이기도 하죠. 자리가 잡혔다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막 공부할 때 우리한테 선배는 없다고 생각했고, 이런 작업은 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연구자로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거를 돌아볼 정신도, 여유도 없고. 그때는 사실 봐야겠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안정되고 앞뒤가 이렇게 다 가려지니까 이런 작업도 하는 것 같아요. 현대문학자대회 같은 것도 꾸려 나가니까. 역시 후생(後生)이 가외(可畏)라! 이 말로 마무리하고 싶네요.